

‘안동대-경도대’ 국공립대 전국 첫 통합 이뤘다

내년 3월 ‘국립경국대’로 출범
25학년도 캠퍼스 총 1539명 선발
안동 ‘인문·바이오·백신’ 선도
예천 지역 수요 기반 인재 양성
기존대학 학생 학습권 보호 ‘합’
대표 종합교육거점으로 ‘도약’

경북도는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K-인문 세계 중심 공공형 대학을 모델로 하는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 간 국·공립대 통합을 전국 최초로 추진해 오는 2025년 3월 ‘국립경국대학교’라는 교명으로 새롭게 출범시킨다.

도는 지난해 정부의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란 국정과제에 맞춰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재편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학 중심 지역발전 모델로써 국·공립대 통합대학 혁신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통합 모델을 추진했고 그 결과 지난해 교육부 주

관 글로벌 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국·공립대 통합 심사위원회에서 통합의 타당성과 통합 이후 특성화 계획 등에 대해 5차례 심의와 수시 서면심의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두 대학의 통합을 지난 7월에 최종 승인했고 향후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을 추진해 통합대학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승인 내용으로 통·폐합 시기는 오는 2025년 3월 1일이며 통합 교명은 ‘국립경국대학교(의미: 경북도 종합국립대학교)’로 결정됐다.

대학본부는 4처 1국 1본부부를 설치하고 안동 캠퍼스는 4개 단과대학, 예천 캠퍼스는 1개 단과대학(4개 학과)을 두고 2025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총 1539명(안동캠퍼스 1429명, 예천캠퍼스 110명)을 선발한다.

두 캠퍼스의 주요 기능으로 안동 캠퍼스는 인문·바이오·백신 분야 지역전략산업 선도를 주요 혁신과제로 선정했으며 예천 캠퍼스는 지역공공수요 기반 인재양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통합대학은 안동시와 예천군을 아우

르는 경북 북부지역의 거점대학, 나아가 경북도 대표 국립종합대학으로서 경북 발전을 선도하는 ‘K-인문 세계중심 공공형 대학으로 대도약’을 비전으로 지역정책, 산업수요를 반영한 글로벌 대학 추진과 연계해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한 통합대학 주요 특성화 전략으로 △(공공대학) 대학-교육연구 공공기관 공동 운영으로 교육·연구기능 수행 △(인문혁명) 한국국학진흥원과 인문융합교육으로 K-인문 세계화 △(장벽파괴) 기관-대학-학생간 통합 대학 구축으로 학생수요 중심 교육 △(지역상생) 지역문화·바이오·백신 육성으로 고교-대학-기업 상생발전을 구현해 나간다.

아울러 도는 통합대학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통합 전의 안동대와 경북도립대의 재학생, 휴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의 신분 보장을 지원해 통합대학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국립안동대와 경



초여름 날씨를 보인 11일 포항시 남구 뱃머리마을에서 근로자들이 발을 매고 있다.

뉴스1

북도립대의 통합은 전국 유일의 국·공립대 통합 선도모델로써 지역혁신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

는 공공형 대학 모델로 만들 계획”이라며 “국립경국대학교가 지방대학이 지역을 살리는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의영 기자p04140@naver.com

대구, TK행정통합추진단 신설... 연내 특별법 通 목표

17일 시동... 1국 2과 15명 규모
권한이양·규제완화 등 특례발굴
낙후지 균형발전 전략 조기 수립
26년 7월 통합지자체 출범 전망

대구는 보다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행정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대구 경북행정통합추진단’을 신설하고 오는 17일부터 즉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통합추진단은 연내 특별법 통과를 위해 특별법안 마련과 낙후 지역 균형발전정책 수립 등을 전담한다.

지난달 17일 홍준표 시장과 이철우 도지사가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에 합의한 이후 대구와 경북은 각각 기획조

정실장을 중심으로 ‘통합TF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통합방향과 추진체계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왔다.

또한 이달 4일에는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모여 4차 회담을 개최했다. 4차 회담에서는 통합의 필요성과 기본원칙, 통합로드맵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를 도출했고 두 시·도 의회 의결을 거쳐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행정체제 개편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통합 비용 지원과 행·재정적 특례 부여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차 회담 이후 대구시는 속도감 있는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을 본격 가동한다.

통합 업무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

안해 통합추진단을 시장 직속, 국장급으로 신설해 오는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 시까지 한시 조직으로 운영한다. 7월 조직개편 시 20여명의 규모로 정식 직제화할 방침으로 고위직 신설 없이 정책총괄조정관 직위를 활용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 파견복귀 인력 등을 재배치해 구성한다.

통합추진단은 1국 2과, 15명 규모의 현원 배치로 다음주부터 즉시 가동해 신속히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추진단장에게는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대상자 우선 선발의 권한을 부여하고 특히 경제, 산업, 예산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역량이 검증된 우수 인력들을 배치해 행정통합 수행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현행 기획조정실장 중심의 통합TF 실무추진단은 통합추진단과 실·국 통합협의체를 총괄하고 행안부,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조정을 함께 수행하게 된다.

특히 통합추진단은 경직된 관료제적 업무체계의 부작용을 원천 차단하고 미션 중심의 탄력적 조직 운영을 위해 팀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인력을 운영 하는 애드 호크라시(adhocracy) 조직 형태로 운영한다.

이미 대구시는 시장의 특별지시로 중앙에 요청할 권한이양사무, 규제완화 사무, 특례 등을 적극 발굴하는 등 특별법안에 담아야 할 내용들을 우선 분석·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향후 통합추진단은 정부 권한과 규제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투자유치, 지역개발 등 이양사무의 발굴과 함께 국회·정부·시의회 등과의 협의, 대구경북 산하기관 통합합 및 이전 정책, 대구경북 통합지자체의 균형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

게 된다.

특히 통합추진단은 대구경북 통합지자체 낙후 지역의 균형발전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계획이다. 경북 북부지역을 집중 발전시켜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조성, 관광산업 활성화, 각종 특구 개발, 통합공기업 이전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통합지자체 행정조직 배치의 경우에도 지역균형을 고려해 지역별 분산 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통합지자체가 출범하면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국을 직제상 최선임급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대구시 통합추진단은 경북도와 의 합동추진단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그 이전이라도 지자체 간 수시회의를 통해 최적의 통합방안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2022년 대구경북통합 논의 시에도 ‘대구경북행정통합 합동추진단’을 꾸려 산격청사 도지사 관사에 사무실을 배치해 운영한 바 있다.

앞으로 대구시는 시가 구성하는 통

합방안을 신속하게 만들어 경북도,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통합 특별법안을 오는 9월 말에 발의하고 10월 의회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안)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를 완료 후 연말에 특별법을 통과시킬 목표로 통합을 추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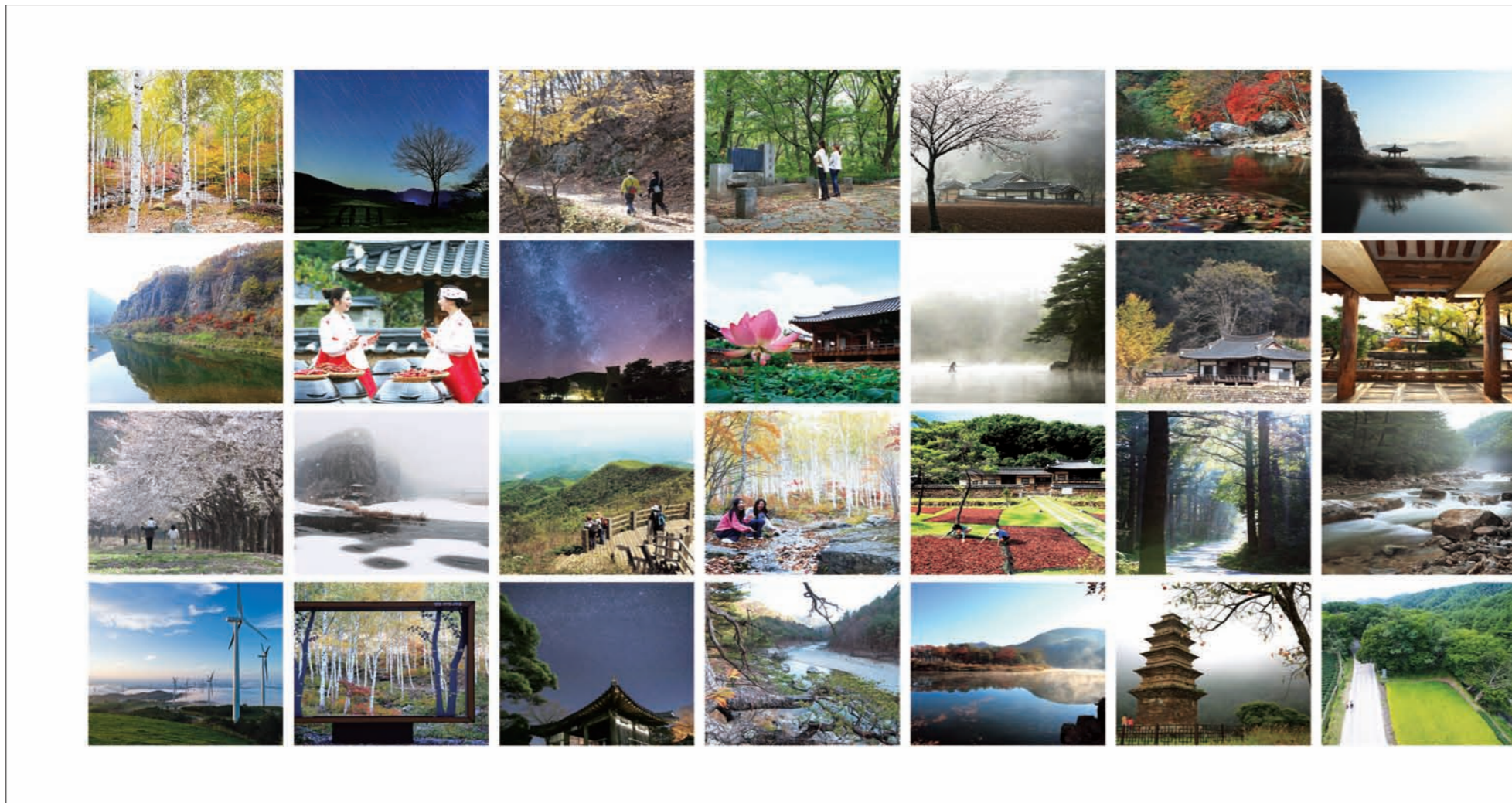
홍준표 시장은 “대구경북행정통합은 대한민국 양대 경제축을 형성해 경제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재도약 계기가 될 것이고 오래된 행정체제를 개편하는 행정체제 대전환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속도감 있는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북이 통합되면 서울의 33배, 경기도의 2배에 이르는 한반도 최대면적의 통합지자체가 되며 경기도와 동일한 31개 시·군·구 기초지자체를 가지게 된다.

또한 통합지자체는 인구 500만의 비수도권 최대 도시가 돼 수도권에 맞서는 새로운 경제축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주말 & 영양

올해 갈 곳은 영양입니다

월·화·수·목·금 ♥ 영양

영양 가있는 ~ 주말!
영양 가 있는 ~ 생활!



주호영, TK신공항특별법 개정... 안정성 확보



대구시와 협의 거쳐 개정안 발의
사업 중 결손분 국가 재량→의무
중전 부지 개발 시 지원 근거 마련
지방채·타당성 심사 등 특례 도입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
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경북
(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
다.

주 의원 측은 11일 "국비 지원을 강화
한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
정 법률안이 최근 대구시와 협의 등을
거쳐 완성됐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 측은 따르면 이 특별법 개정
안엔 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결손이 발생하면 현재 국가가 재량적
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무
적으로 지원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국가가 현재 공항 등이
위치해 있는 중전 부지를 개발할 때 각

종 기반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TK신
공항 건설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지방
채 발행 허용과 타당성 심사 면제, 중
전 부지 개발사업 시행 지역의 개발제
한구역 규제 예외 허용 등 특례 도입안
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주호영 의원은 "대구경북신공항 건
설 사업은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통합
해 이전·건설하는 첫 사례"라며 "통합
시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비
점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뉴스

"北 도발... 여야가 초당적 대응해야"

'오물풍선' 대처 두고 정계 시끌
임종득 의원, 관련 기자회견 열어
"野 국민 불안감만 높인다" 지적

임종득(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도발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처해 나가자고
강력히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병
주 의원이 CBS라디오에서 "정부와 군
은 4차에 걸쳐 오물풍선이 오는데도 손
놓고 있었다"며 "총 한발 쏘지도 못하
고 GOP선상에서 격추시키지도 못했
다"고 한 것에 대해 "북한의 도발에 대
한 비판은 한 마디도 없이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군은 오물 풍선이 완전히 낙하
된 후 수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데 이는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최
소화하고 작전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



이라는게 임 의원
의 설명이다.

또한 김병주 의
원이 "전시에 풍
선에 생화학무기
나 폭탄을 탑재하
면 대단히 위험한
공격이 될 것"이

라고 한 것에 대해 "풍선은 원하는 목표
를 신속, 정확하게 공격할 수 없으며 전
시에는 풍선 살포가 식별되면 실시간
원점 타격이 가능하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정
치적 공세를 위해 북한 도발에는 눈을
감고 우리 정부와 군의 진의를 호도하
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
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북한의 도
발에 대해서는 확고한 원칙 아래 여
야가 초당적으로 단호히 대응해야 한
다"라고 말했다.

정취영 기자 jhy4430@hanmail.net

주권 강화에 앞장선 '경북도 독도수호특위' 전반기 반추

도의회, 12대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日 망언·역사 왜곡 적극·강력 대처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조례 개정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제347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10일 제7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제12대 전반기 2년 동안 특
별위원회의 활동을 담은 활동결과보고
서를 채택했다.

지난 제335회 임시회에서 독도수호
를 전담하는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구
성에 특별위원 9명을 선임한 뒤 일본의
반복적인 독도 영유권 망언과 과거사
를 왜곡하는 일본 교과서 감정 등의 행
태에 대해서 규탄과 함께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게 행동하
는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것
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
다.

또한 특위 활동 중에 울릉도·독도



현장을 방문해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
및 독도침탈 야욕을 강력 규탄한 바 있
으며 재외 동포 학생들에 대한 독도교
육 프로그램 보급지원을 위한 '경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 개정 등을 추진
했다.

허복 위원장은 "독도수호에 자청해
서 함께 해준 특위 위원들께 먼저 고마
움을 전한다"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망인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
부했다.

아울러 관계 부서에는 중앙 부처를

포함한 독도 소관 기관 상호 간 업무협
력체계를 단단히 구축해 일본의 독도
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흔들림 없이
독도수호를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외영 기자 p04140@naver.com

영주시의회, 282회 1차 정례회... 18일까지

의원·시장 발의안 등 11건 처리

영주시의회는 지난 7일 제1차 본회
의를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일정으로는
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본회의 3
일, 상임위원회 활동 5일, 예산결산특
별위원회 활동 1일, 의정자료 수집활
동 4일이 예정돼 있으며 오는 17일 제2
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시정
질문을 실시,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시장 제출 조례안 3건, 의견청취 1
건, 2023회계연도세입·세출 및 기금결
산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예비비 지
출 승인의건으로 총 11건의 안건을 처
리할 계획이다.

심재연 의장은 "이번 회기는 집행부
에서 1년 동안 추진한 업무 성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의미있는 회기로서 시
민을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
심성의껏 답변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고 정책에 대
한 개선의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윤여성 기자 bk01410@naver.com

군민 위해 발로 뛰 '숨은 일꾼 3인' 주목

군위군의회 박수현 의장, 최규중·김영숙 의원 지방의정봉사상

군위군의회는 박수현 의장이 올해
전국지방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을,
최규중·김영숙 의원은 대구군의회장
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을 각각 수상했
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전국시군자치
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상으
로 전국 기초의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가장 의욕적인 지방의정활동을 펼쳐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헌신 봉사한
의원을 발굴하는 상이다.

박수현 의장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함
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2024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자로 선
정됐다.

또한 최규중·김영숙 의원은 초선의
원으로서 신뢰받는 의회 만들기에 앞
장서 왔으며 남다른 열정과 평소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군민복
지 증진과 군정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구군의회장협의회 의정



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수현 의장은 "더욱 열심히 일하라
는 격려로 알고 앞으로도 겸손한 자세

로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
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정성수 기자 power5151@naver.com

영양군의회, 군정 '활력'

제292회 임시회... 예산결산위 구성

영양군의회는 이달 10일부터 18일까
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92회 영양군
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영양군
의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의 건과 영양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
정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세부 일정은 1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2회
영양군의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
명 의원 선임의 건, 공무원외출장 결과
보고 건과 영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과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들을 예정이다.

11일은 군정 보고, 12일은 2023회계
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 제안
설명과 예산결산위원회 구성 결의안,
군정에 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13
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
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검토하고 심사보고
서를 채택한다. 마지막 날인 18일 제4
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한 안건과 영양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함으로써
정례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김석현 의장은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자에게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
력을 바탕으로 활력 넘치는 군정 도모
하고 이를 통해 영양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최
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김경태 기자 tae66611@naver.com

경상투데이 캠페인

저출산 극복

경북형 새날봄

<p>조기퇴근 돌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기 단축 근무 동참(MOU) 근로자 임금 보전 각종 지원사업 우대 및 환경개선사업 시행 	<p>학교 돌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최초 교육청·도협업모델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 AI 기반 돌봄 순환버스 운영 돌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p>심야 돌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돌봄 서비스 24시 어린이집 아픈 아이 긴급 돌봄 24시 응급치치 편의점
--	---	---

▶ 온종일 안전 돌봄 시스템 구축 ◀

저출산 극복에 경주교도소 교정협의회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경북,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육성 '값진 결실'

지자체 합동평가 2연속 전국 1위 6개 지표 모두 초과 달성 기록 산불 최소화 시책 성과 돋보여

경북도가 '2024년(2023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산림 분야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산림청이 주관해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202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행정안전부 주관) 산림 분야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그 결과 경북, 충북, 인천, 울산, 세종시 등 5개 최우수 기관과 전북, 경남, 대전 등 우수 3개 기관이 선정됐다. 지자체 합동평가 산림분야 지표는 △산사태 예방·대응 체계 구축률 △산불방지 성과 달성도 △임도시설 실적률 △산림병해충방제 성과 달성률 △목재이용 활성화 노력도 등으로 총 6개다. 경북도는 전체 6개 지표의 성과 목표를 모두 초과 달성하는 탁월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평가지표와 관련 지난해 '산불방지를 위한 불법행위 금지 행정명령 발령'과 '산불 예방 캠페인 현장 릴레이

이 챌린지' 등 경북도만의 특수 시책으로 산불 피해 최소화(2022년 대비 산불 발생건수 30% 감소)를 실현했으며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국가균형발전 사업에 경북의 임도 시설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 외에도 전년도 최초 시행한 산불진화 임도는 전국 사업량(34km)의 50%(17km, 전국 1위)를 확보하고 산불 예방 숲 가꾸기는 전국 사업량(1만6000ha)의 31%(5000ha, 전국 1위)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올해 불철산불방지(2012년 이후 산불 발생 및 피해 최저 달성)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경북도는 전체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산림으로 도정 발전의 원동력을 삼기 위해 7월 1일 자 산림자원국을 신설(산림소득과 신설 포함)해 부자 경북 실현을 위한 도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지난해 산사태 피해 등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했던 성과가 인정받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경북의 산림이 보물산이 돼 경북도정을 이끌도록 산림정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교육청, 친환경 급식 레시피 공모전 '대상'

김수빈 선주고등학교 영양교사 친환경 농산물로 건강 급식 제공

경북교육청은 11일 한국친환경농업협회가 주최,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영양사협회가 후원하는 '친환경 급식 하루 식단 레시피 공모전'에서 김수빈 선주고등학교 영양교사가 대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유기농업의 가치를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유기농데이 행사 중 하나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식문화를 알리고 친환경 강화와 소비 공감대 형성을 통한 유기농·친환경 식재료 소비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의 학교와 병원, 산업체 등 단체급식소의 130개 팀이 참가해 제출한 식단에 대한 내·외부

전문가의 서류 심사를 거쳐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참가상 등이 결정됐으며 김수빈 영양교사의 '경북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 식재료를 활용한 식단'이 최종 대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제출한 식단은 봄나물 꽃비빔밥과 청국장찌개, 식물성 떡갈비, 수제생크림카스테라파베기, 김치, 친환경 딸기로 구성됐다. 김수빈 영양교사는 "이렇게 큰 상급(150만원)은 처음이다. 경북교육청에서 친환경 식재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만큼 월 1회 시행하는 채밋데이 외에도 일상 급식에서 좀 더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확대해 다양한 레시피로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급식을 제공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교육청, 유아교육체험센터 9곳서 '가족 프로그램' 큰 호응

놀이 문화 격차 해소 위해 운영 10월까지 유아·가족 대상 총 5회

경북교육청은 11일 등 9개 교육지원청(포항·경주·김천·구미·영주·영천·상주·경산·칠곡) 유아교육체험센터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가족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9개 청 유아교육체험센터는 지난 2010년부터 놀이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건강한 가족 놀이 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아와 가족을 대상으로 5회의 가족 체험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가족 체험 놀이 프로그램은 우리 가족 오감 놀이, 요리 활동, 염색 체험, 만들기, 체험센터 놀이시설 이용 등으로 진행된다. 한편 유아교육체험센터는 지난해부터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과 행사에 필



요한 교재·교구와 물품을 대여해 유치원 현장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지원과 유치원 예산 절감에도 도

움이 되고 있으며 대여 물품 목록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탑재돼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유아교육체험센터 가족 놀이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

공동체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복지 실현과 행복한 가족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 지역 지정 '도전장'

도, 5명의 전문 위원 컨설팅 통해 11개 시군 운영기획서 검토·분석

경북도는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 지역 지정 공모 시·군 지원을 위해 11일과 13일 양일간 도청 회의실에서 전문 컨설팅을 한다. 현재 2차 시범 지역 지정 공모를 준비하는 시·군은 경주시, 김천시, 영주시, 영천시, 문경시, 경산시, 청송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울릉군 등 총 11개 시·군이다. 경북도는 지난 2월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 지역 공모에서 9개 시·군이 신청해서 8개 시군이 지정되는 성과를 이룬 바 있다. 이에 따라 2차 시범 지역 지정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최대한 많은 시·군이 지정될 수 있도록 도의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번 컨설팅은 교육 관련 전문가, 경북연구원, 교육청 및 도 관계자 등 5명

의 위원이 시·군에서 기획한 운영기획서를 자세히 검토하고 분석해 지역 특성에 맞는 비전과 보완 사항,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교육발전특구로 도내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역량을 강화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기업 등 지역기관들과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모사업이다. 2차 시범 지역은 이달 말까지 기획서를 제출하면 서면 및 대면 심사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달 말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경북농기원, 도내 농업용수 수질 이상 無 하천수 '기준치 내 적정', 지하수는 '기준치 내 양호'

경북도 내 농업용 소하천과 지하수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농업기술원은 지난 4월부터 농업인 건강과 농산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용 소하천과 지하수 수질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1차 조사 결과 도내 농업용수 수질은 양호한 것

으로 나타났다. 경북농업기술원은 지난 2000년부터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해마다 농업용수 수질 변동조사 진행 중이며 수질분석 결과는 OECD 농업 수질지표 작성과 농작물 안전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올해 수질 조사에서 도내

농업용 하천수는 3회(4월, 7월, 10월) 28지점, 지하수는 2회(4월, 7월) 20지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하천수는 pH, 용존산소(DO) 등 법적 기준 포함 16개 항목, 지하수는 pH, 질산성질소(NO3-N) 등 14개 항목이 분석 대상이다. 지난 4월 도내 하천수 평균 수질은 pH 8.0, 총인(T-P) 0.06mg/L 등 모든 항목에서 기준치 내 적정 수준이었고 지하수 평균 수질 역시 pH 7.1, 염소이온(Cl-) 19.54mg/L 등 모든 분석 항목에서 기준치 내 양호한 수준이었다.

또한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Cd), 비소(As), 납(Pb)은 하천수와 지하수 모두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영숙 원장은 "지하수난화로 인한 기온과 수온의 상승은 농업용수원인 소하천과 지하수의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적정 수준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선제적인 농업용수 수질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어린이보호구역
SCHOOL ZONE

어린이 보호

주정차금지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앞서는 경주

2021년 10월 2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휴일·공휴일 상관없이 매일 오전 8시~오후 8시
1분만 정차해도 과태료 12만원(승용차 기준)

경상투데이는 불법주정차 없는 안전도시 경주 만들기에 동참합니다



벌써 폭폭... 이번주 '낮 기온 35도' 까지 올라간다

14일까지 '뽕통더위' 이어질 듯 올여름 폭염 일수 더 많이 발생

올해 첫 폭염특보 발령 뒤 무더위가 전국적으로 확대 조짐을 보인다. 먼저 첫 뽕통더위는 금요일인 14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평년보다 강하고 지독한 더위는 여름 내내 이어지겠다.

11일 기상청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폭염 특보는 이날 경상 내륙으로 확대가 유력하다.

폭염 특보는 대구와 울산(서부), 경북 영천·경산·청도·경주, 경남 김해·창녕에 발령 상태다. 합천(33.4도)과 구미(33.3도), 포항(32.9도) 등의 전날(10일) 낮 최고기온을 보면 낮 기온이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도 폭염 특보 발령 가능성이 있다. 이천(32.0도)과 서울(32.3도, 노원구) 등의 낮 기온도 33도에 육박했다. 서울 체감온도는 최고 32.3도(노원구)까지 올라갔다.

올여름 첫 폭염 특보는 낮 최고기온이 35도 치달은 금요일인 14일까지 유지되다 점차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기상청은 토요일인 15일쯤 전국이 기압골 영향으로 흐리지면서 제주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일요일 16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 등에 비 내리는 구역을 확대되며 무더위가 다소 식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번주 폭염은 올여름 무더위의 시작일 뿐이다.

올여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보됐기 때문이다. 중기 전망에 따르면 6월(평년 21.1-21.7도)과 8월(24.6-25.6도)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다. 7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로 전망된다.

6-8월 기온이 평년보다 낮을 가능성은 20%밖에 안 된다.

높은 기온은 평년보다 오래 지속될 것이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폭염 연구센터는 올여름 폭염이 평년(10월 2일)보다 많이 발생하겠다고 내다봤다.

특히 지금처럼 장마 전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다.

폭염연구센터는 올여름 3년 만에 찾아왔던 엘니뇨가 끝나고 중립 또는 라

니냐로 전환되며 6월 장마 시작 전 폭염일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명인 폭염연구센터장은 "(장마철인) 7월은 동아시아 강수량이 늘어나며 폭염일은 적겠지만, 비가 내리는 날 사이에 '습윤한 폭염'이 발생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폭염 극성기엔 지속적이고 강한 폭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여름철 무더운 날씨는 한국만의 걱정은 아니다.

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기구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에 따르면 전세계 표면 기온은 지난해 6월 이후 12개월 연속으로 '역대 가장 더운 달' 기록이 이어지고 있다. 뉴스1

의협 전면 휴진 예고에 대구 의료계 긴장 고조

자제vs증원막자... 찬·반 '팽팽' 경북대병원도 동참하지 않기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개원의 등을 회원으로 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면 휴진을 예고한 18일이 다가오면서 대구지역 의료계 안팎에서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국민 생명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의료인으로서 진료 거부 등 집단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과 '합리적이지만 않는 의대 정원 증원만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는 기류다.

약 6000명의 회원을 가진 대구의사회의 경우 실제 전면 휴진에 나설 개원의 등의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대구 의사사회 측은 "오는 18일 시작되는 전면 휴진 때 대구지역 동참 인원은 현재로서는 전혀 예상이 안 된다"며 "(전면 휴진 동참에 대한) 신청도 아직 받지 않았다"고 했다.

대구 의료계 내부에선 휴진에 참여하

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네 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의 경우 휴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했다.

또 휴진에 따른 후폭풍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정부가 '행정 처분'이라는 강공책을 유지할 경우 면허 정지로 병원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크게 염려하는 분위기다.

대구 의 한 대학병원에 정기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는 현모 씨(68)는 "의사들 입장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애타는 것은 환자와 보호자가 아니겠느냐"고 했다.

한편 오는 17일 예정된 서울대병원과 의대 교수들의 진료 거부와 달리 경북대병원은 단체행동을 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서울대병원 외래진료·정규수술 중단에 동참하지 않는다"며 "환자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했다. 뉴스1

영주경찰, 번개탄 피운 자살기도자 구조

영주경찰서 신영주 지구대 경찰관들이 번개탄 3개를 피운 자살을 시도한 50대 김모 여성을 구조했다.

신영주지구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7시께 "가게 안에서 불을 피우고 자살하려고 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신속히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가게 내부에서 연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현장에 진입, 주변에 있던 물을 이용해 타오르고 있던 번개탄을

진화했다. 이후 곧바로 가게 내부를 수색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쓰러져있던 요구조자를 발견, 가게 밖으로 신속히 대피시켰다. 경찰에 의해 구조된 요구조자는 간단한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자살기도자 구조에 앞장섰던 신영주지구대 임원형(사진) 순경은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신속한 현장조치로 인명을 살릴 수 있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여성기자bk01410@naver.com



"노인학대 예방·근절"... 경주경찰, 캠페인 전개

경북동부노인보호기관과 진행

경주경찰서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경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6월 한 달간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고취를 위해 11일 경주 성동시장 일대에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양 기관은 경주 지역 노인 인구 비율이 25.9%에 도달함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을 통해 경주시민들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등 잠재된 지역사회 내 학대사례 발굴 및 예방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박봉수 서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경주시민의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노인학대 예방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인학대 신고는 112를 통해 가능하며 노인학대 상담 문의는 24시간 노인학대 상담전화(1577-1389)와 경북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박삼진기자wba112@daum.net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지킬 수 있어요"

영천, 투명페트병 라벨제거기 등 동행정복지센터서 무료로 배부

영천시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정착을 위해 투명페트병 라벨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라벨제거기 1000개와 홍보물을 제작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무료로 배부한다고 11일 밝혔다.

라벨제거기는 길이 8cm로 내부에 자석을 부착해 실용성과 휴대성을 높였고, 칼날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설계돼 안전성이 뛰어나다.

또한 칼날을 교체할 수 있어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하며, 투명페트병과 라벨 사이에 끼워 당기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사용법으로 어린이는 물론 시민들 누구나 쉽게 사용이 가능하다.

투명페트병 라벨을 제거하지 않고 배출하면 재생원료의 품질 저하로 재활용률이 낮아질 수 있으나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면 재생페트, 기능성 의류, 화장품 용기 등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고품질 재생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내 홍보물 부착, 전광판 및 SNS 홍보, 행정복지센터 내 전단지 비치 등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최기문 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순환 경제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원순환 정책 사업을 펼쳐 클린 영천시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열기자jisy92920@hanmail.net

의성 춘산면, 생활지원사와 독거 어르신 생명 구해 '훈훈'

의성군 춘산면(면장 박용석)은 지난 7일 춘산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생활지원사와 함께 독거 어르신의 생명을 구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춘산면에서 생활지원사로 일하는 김영애씨(여·60)는 평소와 같이 지난 7일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 A(86)댁을 방문했다. 어르신은 평소와 달리 안색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심음소리를 내며 누워 계셨다. 이에 이 생활지원사는 긴급연락망을 활용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연락, 복지팀 소속 공무원이 긴급 출동해 병원까지 동행했다. 어르신은 아침마다 구토를 하고 두통, 어지러움증을 느끼는 등의 증세를 보였으며 하루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급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긴급한 입

원이 필요했기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차량'을 활용해 입원이 가능한 인근 병원에 어르신을 직접 모시고 가서 입원 수술을 받았다.

보호자 B씨는 "현재 부산에 살고 있어 당장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가족을 대신해 도움을 주신 생활지원사와 복지팀에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정성수기자power5151@naver.com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70604-중-326호

조루, 발기부전, 전립선 질환을 한방으로 치료한다

장정불로단(壯精不老丹), 하루 2번 간편복용으로 중년 남성의 고민 해결

고개 숙인 중년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조루·발기부전·전립선 질환·만성피로 등 여러 가지 남성 질환을 위한 한방 치료법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어 화제다. 강남 논현동에 위치한 강남행복한의원에서 처방하는 장정불로단이 바로 그것.

장정불로단은 <만병회춘> 고전에 나온 연령고본단(延齡固本丹) 처방을 가감하여 산수유, 구기자, 맥문동, 천문동, 복분자, 파고지, 숙지황 등 20여 가지의 약재로 처방한 약이다. 이 약은 중년 이후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다스리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소모된 정기신혈 진액의 원천을 보충해 준다.

이 원장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와 인스턴트식품의 섭취, 운동 부족, 흡연과 음주 등으로 중년의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며 "매사에 의욕이 없고, 피로와 권태를 호소하며, 성적 자신감까지 잃은 남성에게 큰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도의 정신활동 등으로 스트레스와 만성피로를 겪고 있는 전문직 남성들에게도 입소문을 통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소모된 기혈진액을 보충, 활기차고 건강하게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세포의 생리 활성이 떨어지면서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기능이 약해진다. 이에 따라 신체조직과 장기의 전반적인 신진대사기능이 저하되고, 피부와 모발 및 근육은 건조해지며, 뼈도 성글어진다.

결국 몸의 여기저기가 아프고, 의지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며, 정신적인 피로까지 호소하게 된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생명현상의 기본 물질인 정기 신혈 진액의 소모로 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방 치료는 소모된 기

혈진액을 보충해줌으로써 세포와 조직에 생기를 불어 넣고 엔진을 다시 가동시키는 것이다. 장정불로단을 복용 후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만성피로와 성욕감퇴의 경우 몸이 가벼워지고 의욕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며, 발기부전 또한 개선된 사례가 많다. 특히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현대 남성들의 경우, 생기와 활력을 되찾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만성피로, 발기부전, 조루, 성욕감퇴, 노화 등에 효과적

한마디로 장정불로단은 우리 몸 전체에 생기와 원기를 불어넣는 한방 보양제라고 할 수 있다. 만성피로에 지친 남성, 발기 부전이나 조루, 정력 부족을 호소하는 남성에게 효과가 있

으며, 흰머리, 잔주름, 피부 탄력 저하, 성욕 감퇴 등의 노화 현상도 개선시킬 수 있다. 또한 중풍 후유증의 병후 관리나 정맥 부족 등으로 인한 남성 불임에도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잘 낫지 않는 전립선 질환의 경우 이수비료탕으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정불로단은 일반 탕약이 아닌 환약으로 되어 있고, 하루에 2번 복용하기 때문에 무척 편리한 것이 장점이다. 특히 체질과 나이에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고, 부작용이 적은 한방치료법이기에 때문에 중년 남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남행복한의원 ☎ 02-512-6510
www.kangnamh.co.kr

주낙영 시장, 토함산 일대 산사태 예방 '총력'

관계 공무원과 함께 헬기타고 '한남노~현재' 피해상황 점검 24시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해 위험징후 발견 시 즉각적 조치

주낙영 경주시장이 장마철 산사태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복구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11일 오전 토함산 일대 위험지역을 시찰했다.

경주시는 최근 국립공원 토함산지구 곳곳에 산사태 발생에 따른 인문보도와 피해 신고가 잇따라 접수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 시장이 직접 헬기를 타고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지난 2022년 9월 태풍 한남노 내습시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산사태 현장을 한 시간 가량 시찰하는 등 복구 상황 등을 점검하고 실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주낙영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면서 복구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며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비상연락망도 다시 한번 점검해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어디에서나 산사태 위험지역이 될 수 있는 만큼 안전의식을 갖고 유사시 대피 안내

에 따라 지정된 안전지역으로 신속히 대피하는 등 적극적인 시민들의 협조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시는 이번 현장 점검을 토대로 이달 말까지 석굴암 석굴 주변 긴급정비 공사를 비롯해 마동, 범곡리 주변 계곡부

및 토사정리를 진행한다. 외동 신계와 범곡리, 불곡로에는 사방담 준설도 실시하는 등 산사태 구조적 대책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또 산사태 주변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산사태 국민행동요령 홍보물을 배포하고 무선마을방송 가정용 수신기를 보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산사태 위기 경보 발령 시 지역 산사태 상황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위험징후 발견 시 즉각적인 조치와 주민 사전대피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달 16일과 17일 이틀간 산림청, 국가유산청, 국립공원관리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 등과 합동점검 실시했다. 또한 30일에는 문무대야면 범곡리 일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산사태 재난 대피 훈련과 찾아가는 산사태 피해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위험에 처한 사람 주저없이 구조할 것"

경주소방, 화재현장서 인명 구한 최용제씨에 서장 유공 표창 수여

경주소방서는 지난 7일 최근 강동면 유금리에 소재한 아파트 화재현장에서 이웃 주민을 구조한 최용제씨에게 서장 유공 표창을 수여했다.

최씨는 지난 5월 26일 밤 10시 49분께 외부에서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연기 및 타는 냄새를 맡고 구조상황을 인지한 즉시 복

도 창문을 부수고 내부로 진입해 현관문 앞에서 연기 흡입으로 밖으로 탈출하지 못하고 있던 주민을 구조했다.

최용제씨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이웃 주민이 크게 다치지 않아 정말 다행이다"라며 "앞으로도 누군가가 위험에 처한다면 주저 없이 용기 내 구조하겠다"고 밝혔다.

조유현 서장은 "최용제씨의 용기 있는 초기 대처로 위험에 처한 시민을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불국공원 무허가 노점상 '물리적 충돌없이' 철거

2월부터 계도·자진 철거 유도 끊임없는 소통행정 '값진 결실'

경주시는 불국공원의 골칫거리였던 무허가 노점상을 모두 철거했다고 밝혔다. 11일 경주시에 따르면 곱빛꽃 성지로 잘 알려진 불국공원을 십수년간 무단 점유해 온 노점상 10여곳이 모두 자진 철거했다.

이 같은 무허가 영업으로 인해 불국공원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통행에 지장을 주면서 갖가지 민원이 야기돼 왔다. 특히 이들 노점상이 파는 음식들이 식품위생법상 사각지대에 놓여 먹거리 안전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주시는 지난 2월부터 민원을 접수해 현장 계도 및 단속에 나섰다.

시는 행정 대집행 등 강제 철거를 진행하는 물리적 방법 대신 계고장을 보내며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소통행정을 펼친 끝에 지난달 말까지 불법 노점상의 자진 철거를 이끌어 냈다.

주낙영 시장은 "불국공원 노점상 정비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끊임없는 소통으로 이뤄낸 의미 있는 결실"이라며 "경주시는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경주아코디언소리연구회, 아름다운 '재능기부'

지역 복지시설 찾아 위문 공연 어르신들 웃음과 박수 쏟아져

경주아코디언소리연구회가 경주 지역 곳곳의 복지시설을 찾아 위문공연을 펼치며 행복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다.

경주아코디언소리연구회는 지난 3일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 아코디언 연주와 마술, 복화술 등의 위문 공연을 펼쳐 입원어르신과 간병인,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100여명으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평소 복지시설에는 지역의 각 봉사단체에서 다양한 재능기부를 오고 있

지만 복화술 등 이번처럼 다소 생소한 공연은 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회원들은 이날 가능한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아이템을 연출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그간의 갈고닦은 솜씨를 마음껏 선보여 공연 내내 웃음과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공연을 지켜본 한 어르신은 "거동이 불편해 늘 병실에서만 지내다가 마술 등 자주 볼 수 없는 공연으로 모처럼 생활의 활력소가 됐다"면서 재능기부를 선사해 준 회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이번 공연을 주도한 김광하 회장은 "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단지 몸이 불편할 뿐이지 마음은 항상 MZ세대"라는

말과 함께 "잠시나마 좋아하시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더 좋은 공연으로 꼭 다시 찾아 어르신들에게 마음의 보약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능을 기부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경주아코디언소리연구회는 지난 2014년 아코디언을 좋아하고 재능기부에 뜻이 있는 지역인 12명으로 구성해 불국사 인재양원, 경주동궁원, 울주군 공동요양원, 보문단지 야외버스킹, 경주대 초청연주회, 한국한시협회경주동도지사 초청공연, 경주동방지역아동센터 등을 방문해 활발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경규 기자seoul411@hanmail.net

한남노 피해지 암곡동 일원에 상수도 신설

12km 지방상수도 관로 공사 추진

경주시는 총 20억원을 투입해 암곡동 일원을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12km 규모의 상수관로 신설 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1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태풍 한남노로 암곡동 일원에 수도공급이 중단됐으나 이번 상수관로 신설 공사로 안정적인 수도물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시는 앞서 암곡동 계정·시래 지역을

대상으로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올 4월까지 6km 수도관 공사를 진행해 인근 100가구 지방상수도 공급을 완료했다.

이어 암곡동 왕산 지역을 대상으로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다음 달까지 암곡경로당에서 암곡탐방지원센터 방향

으로 6km 지방상수도 매설을 실시한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방상수도 공급을 통해 111세대에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가능하게 된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동국대 WISE 간호대학, 보건부 공모 선정

의료인력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간호대학 간호학과가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2024년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선정됐다. 사업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대학마다 4억원을 지원받는다.

11일 동국대 WISE캠퍼스 간호학과에 따르면 '경북 동부권역 교육 소외와 의료격차 완화를 위한 시뮬레이션 허브 구축'을 비전으로 실제 임상과 유사

한 상황에 몰입해 학습할 수 있는 최첨단 환경인 (가칭)Wisdom Integrated Simulation Education 센터(The WISE 센터)를 구축한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동국대 WISE 캠퍼스 간호대학뿐만 아니라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임상간호사, 지역사회간호사, 지역 대학 교원 및 간호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임상 역량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경규 기자seoul411@hanmail.net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된 도시 경주

미래원전, 신해양 르네상스 도약!

2025년 APEC 정상회의

지역균형발전 APEC 소규모 성장가치 실현 최적도시 경주

생산 유발 **2조 원**
부가가치 유발 **5536억 원**

SMR(소형모듈원자로) 국가산단 2030년 완공

문무대왕과학연구소 등 풍부한 원전 인프라와 함께 글로벌 원자력 산업거점 도약

경제효과 **7조8082억 원**
고용효과 **2만8178명**

동남권 해양레저 관광 거점사업

해양레저 지원센터·레저체험센터 용오름길·고라성플랫폼·나경 수상 레저 체험장 문무대왕 해양조각공원·만파식적 공원

갠포 나경고운모래 해변 **7만7820㎡**
총사업비 **490억 원**
신라오션리조트 조성

녹음의 따뜻함 실내 가득 '대구꽃박람회' 성료

3만8874명 방문, 전년비 3% 증가 꽃꽂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 호응 지역 화훼 농가 상품 판매 기회

대구시는 지난 5일부터 4일간 엑스코에서 개최된 국내 최대 규모의 실내 플라워쇼인 '제15회 대구꽃박람회 (Daegu Flower Show 2024)'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제15회 대구꽃박람회는 대한민국 최대 실내 플라워쇼라는 명성답게 3만 8874명(전년대비 3% 증가)의 관람객이 전시장을 찾았으며 올해 행사의 주제인 '꽃, 365'를 자연 속에서의 삶의 의미로 꽃을 재해석한 '주제관'은 순백의 신비로움과 녹음의 따뜻함을 표현했다.

특히 12개 작품으로 치열했던 '청라상관'에서는 (사)한국화훼장식기사협회 대구경북지부가 한 개인의 탄생에서 죽음까지 특별한 시기마다 치르는 의례를 꽃으로 표현해 농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청라상관 중 포토존으로 가장 인기 많았던 작품은 현재 대형쇼핑몰에 판매를 협의 중이며 화훼용품 판매업체가 지난해 대비 3배 정도 늘어날 절화, 분화, 토분, 비료 등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사)플라워아티스트포럼에서 준비한 어르신 꽃꽂이 무료체험 행사는 많은 관심으로 오픈과 동시에 신청자도 붐볐으며 올해는 세종에서 온 103세 할머니가 참여해 플라워 아티스트들과 함께 꽃꽂이 작품을 완성하시곤 행복한 웃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 밖에도 달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메리골드, 라벤더 등 초화 3000여개를 기증해 이벤트에 참여한 관람객에게 증정하는 등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였다.

플라워·홈데코 페어는 지역 화훼 농

가에서 직접 키운 상품을 직접 판매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화훼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했으며 화훼인들의 경연장이 된 '대구생활화훼경진대회', 다육 및 절화 등 지역 우수 화훼상품 품평회인 '꽃옴슴', 희귀식물과 트렌디한 토분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던 '힐링플랜츠 마켓'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관람객들에게 불거리 이상의 즐거움을 선사했다.

한편 올해도 대구꽃박람회를 위해 후원을 해준 농협은 '농협과 함께 365 꽃길'이라는 주제로 행복농촌을 표현

한 화훼작품을 지역 농산물과 함께 선보였으며 처음으로 선보인 대구시정 홍보관은 대구시와 9개 구·군, 대구은행의 비전과 문화를 나타내는 홍보물과 화훼작품으로 화합된 대구를 형상화했다.

안중근 경제국장은 "수준 높은 조성관과 풍성한 체험행사,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이 미소 짓고 힐링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내년에 더욱 다채로운 꽃박람회로 다시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군위의회 "주민 대변자로 역할 충실히"

2024년 행정사무 감사 돌입 예산집행·민원처리 등 살펴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돌입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280회 군위군의회 임시회에서 구성됐다. 위원장으로 장철식 의원, 간사로 최규중 의원을 선임하고 서대식 부의장, 박운표 의원, 홍복순 의원, 김영숙 의원 등 6명의 소속 위원으로 꾸려졌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일부터 오는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11일부터 17일까지는 실·과·단·소, 읍·면을 대상으로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부서별 보고 및 감사 질의 답변을 진행한다.

오는 18일은 현장방문, 19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의가 예정돼 있다.

장철식 위원장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 주민 민원 사무 처리 실태, 공공시설 운영 상황 등 행정 전반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주민들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대구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힘찬 도약!



호주 멜버른 공무원들,市 방문 신천하수처리장 견학 등 '관심'

대구시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탄소중립 현안과제 공유를 위해 호주 멜버른 공무원이 대구시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구 방문은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 협약(GCoM)에서 주관해 전세계 탄소중립 선도도시의 도시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된 자리이다.

이번 도시교류 프로그램은 지난해 7월 세계 GCoM 가입도시 중 탄소중립 추진 우수도시 20곳을 선정하고 총 10쌍을 매칭해 도시 기후행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대구시가 선정돼 호주 멜버른시와 매칭이 돼 상호 교류하게 됐다.

대구시는 '제1차 대구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4년~2033년)'을 올해 4월 수립·발표해 총 8대 부문 75개 과제를 이행 중이며 그중 대구시의 중점 추진 과제인 물, 에너지, 산림 분야를 멜버른시에 소개한다.

첫째 날인 11일 멜버른시의 공무원들은 시청에서 '제1차 대구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에 대한 계획을 청취했으며 대구시의 주요 탄소 배출원이자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신천하수처리장을 견학해 탄소중립을 위한 시의 노력에 관심을 보였다.

둘째 날에는 대구시의 신재생에너지 추진방향과 시민햇빛발전소 견학,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물산업 및 물관리 방법 등을, 마지막날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숲 조성 사례와 클린로드 복원 사례를 알릴 예정이다.

허종정 기후환경정책과장은 "대구시는 현재 어느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에 방문하는 호주 멜버른 시와의 상호 간 탄소중립 현안과제 공유 등으로 대구시민의 특성을 살린 정책과 탄소중립 추진 우수 분야를 적극 홍보하고 호주 멜버른시와 협업 분야를 발굴해 '탄소중립 선도도시 대구'로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도시열섬·미세먼지 싹~"... 달성, 클린로드 시스템 운영

지하철 유출수로 도로에 물 분사 여름철 대기질·열 환경 개선 탁발

달성군은 다가오는 여름철 폭염을 대비해 이달부터 8월까지 클린로드 시스템 운영한다고 밝혔다.

뜨겁게 달아오른 아스팔트와 매캐한 매연, 대구의 여름은 시민들의 숨통을 조여온다.

달성군은 여름철 지역주민들에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화원을 명천로 △다사읍 대실역 △화원을 화양로 일대에 총 3개소, 약 3km 구간에 클린로드 시스템을 도입했다. 클린로드 시스템은 도로 중앙 분리대에 설치된 살수노즐을 통해 도로에 물을 분사하는 시스템으로 군은 친환경적인 수자원 활용을 위해 지역 내에 설치된 시스템 운영에 지하철 유출수를 사용하고 있다.

계절을 가리지 않고 활용도가 높은 클린로드 시스템은 하절기에 가동 시 노면 온도를 6~10℃ 정도 식혀줘 열섬

현상 완화에 효과적이다. 또 도로 위 흠날리는 먼지도 씻어내 미세먼지가 20% 정도 감소하는 등 여름철 대기질 및 열 환경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동절기에는 하절기와 다르게 빙판길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며 이때는 일반적인 물이 아닌 염수를 분사해 제설 및 결빙 방지에 활용된다.

이달을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운영될 클린로드 시스템은 주민들에게 보다 시원하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표온도 46℃ 또는 초미세

먼지(PM2.5) 농도 75µg/m³ 이상 시 자동으로 자동제거설 설치되었으며 향후 폭염주의보나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시에는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최재훈 군수는 "무더운 여름철 클린로드 시스템 운영을 통해 군민 모두가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전했다. "클린로드 시스템 운영 시 분사되는 노면수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차량 감속 등 안전 운행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장준찬 기자jongchan2114@naver.com

대구지방보훈청 '통합보훈관 조성' 중구청에 감사패 전수

대구지방보훈청은 11일 대구시 중구청에서 '국가보훈부장관 감사패 전수식'을 가졌다.

대구 중구에는 보훈단체별로 별도로 사무실을 입차하고 있어 구심점 마련

을 위한 통합 보훈회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중구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내부 리모델링 공사(지방비 약 10억원)를 시행해 지상 3층, 8537㎡ 규모의 통합

보훈회관(국채보상로 732)을 조성했다.

박현숙 청장은 "지역 보훈회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금을 일부 지원받아 건립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대구시 중구청은 전액 지방비 예산으로 자체 추진해 통합보훈회관을 조성했다. 이는 전국에서도 모범이 되는 사례이며 이를 계기로 국가공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한 보훈의 가치가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살국유사의 남교장 군위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

대구광역시 군위군

파워풀 대구와 함께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영주, 지역민 문화 활동의 거점 공간 '문 활짝' 문경서 '그린 경북' 외침... 환경·기후 경각심

금계1리 행복 명당 문화센터 탄생 연극 동아리 등 연습 공간 활용 역사 홍보·음악회 등 볼거리 풍성

경남권 심층지 중에서도 제1층지로 꼽히는 영주시 풍기읍 금계1리에 주민 문화 활동 거점 역할을 할 '행복 명당 문화센터'가 탄생했다.

영주시는 지난 10일 마을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 명당 문화센터(금계리 537-2번지 일원) 준공식을 개최했다.

행복 명당 문화센터는 지난 2022년 경북도 '문화특화마을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공사비 6억1200만원(도비 1억8400만원)으로 지난해 9월 착공, 올해 5월 1층 64.29㎡, 2층 50㎡ 규모로 건립됐다.

금계1리는 문화센터를 연극 동아리 등의 연습 공간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활



동의 거점 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향후 주세봉 선생과 성리학 등 지역과 관련된 역사 홍보콘텐츠는 물론 풍년을 기약하는 음악회 등 행사도 마련해 주민뿐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문화적 볼거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장길 이장은 "주민이 윤택한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이번 문화센터 준공을 계기로 경북을 대표하는 문화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남서 시장은 "행복 명당 문화센터

가 지역민들의 다양한 문화 활동의 거점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여상 기자bk01410@naver.com

제29회 경북환경의 날 기념식 개최 도시사표창·백일장 전시·체험행사

지난 7일 문경 문화아트홀에서 '제29회 경북도 환경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1회용품 줄이기, 자원 재활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와 같이 일상 속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해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는 주제로 진행됐다.

기념식에는 신현국 시장, 임이자 국회의원,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박영서 도의회 부의장, 환경 관련 단체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인간도 솔리스트 앙상블' 공연, 환경보전 유공자 표창, 기념사, 환영사, 그린경북을 위한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환경의 날 기념 도시사 표창은 환경보전에 공로가 큰 기업, 시민단체

등 각 분야 민간인 12명과 공무원 13명 등 25명에게 돌아갔다.

기념식 행사와 함께 야외마당에서는 '어린이 자연사랑 환경백일장' 수상작과 기후환경 사진 등 50여점을 전시해 기념식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또한 탐사르 습지에 지정된 문경둘리네습지 안내부스와 페플라틱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화분 심기 체험행사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신현국 시장은 환영사에서 "환경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주출산 케이블카를 조성해 문경을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에게 전례의 자연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안동시, 고즈넉한 금화마을에서 1박 2일 여행 어때요?

투어패스 구매 시 숙박이 무료 이달 예약자에 한해 할인 혜택

안동시 임하면에 위치한 천년 안동포 마을 금소마을은 1박 2일 마을여행 상품 '금양연화'의 출시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외 여행객들을 맞이한다.

금양연화 상품 구매 시(3가지 종류)의 투어패스 형태로 판매) 마을 내 숙박(일부 숙소 추가 요금 발생)을 무료로 제공하며 이달 예약자에 한해 출시 기념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안동시가 주최하고 (사)국가무형문화재 안동포짜기마을보존회(회장 임방호)가 주관하는 '살아 숨 쉬는 고택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금양연화'는 여러 고택과 수로, 안동포

등 다양한 금소마을 자원을 활용한 마을여행 상품으로 금소의 옛 이름 중 하나인 '금양(鎭陽)'과 영화 '화양연화'에서 모티프를 얻어 만들어졌다.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금양연화는 커뮤니티센터에서 오리엔테이션 및 숙소 체크인 후 체험프로그램으로 △비단 같이 맑은 내를 뜻하는 '금수(錦水)'의 좋은 물, 누룩, 고두밥으로 114년 전통 임하양조장 3대 대표와 전통막걸리 만들고 시음하기 △2024년 KBS '한국인의 밥상'에 출연했던 지역 셰프와 마을 식재료를 이용 마을 가정식을 만들고 맛보는 쿠킹클래스 △붓도랑에서 대한민국 금속패물 분야 숙련 기술전수자 부부와 함께 대마 잉어물을 활용한 유등 띄우고 소원 빌기 △시골밥상으로 차려지는 조식 뷔페 △마을의 자랑인 붓도랑과 길안전을 따라 골목과 생태공원 등을 걷는 금소

비단물길(위터실크로드) 산책 △안동포짜기 시연 관람 △안동포를 활용한 자거름방 만들기 등이 진행된다.

또한 마을 화목을 위해 할매가 운영하는 '화목카페'에서의 차담 및 어둡해진 저녁 고택 앞마당에서 즐기는 전통주막 등도 함께 운영한다.

한편 △14일~오는 7월 10일에는 세계적인 팝스타 리한나 등의 의상을 제작한 백아란 작가, 자연 소재와 바느질로 빛마루를 장식할 이도경 작가, 금소마을 특산물인 험프씨드 오일을 이용한 신제품 런칭 오픈 전시가 금주제에서 펼쳐지고 △8월 23일~10월 26일에는 마을과 환경을 주제로 독립영화 대상 수상 감독과 함께 단편영화를 감상하는 마을영화관이 운영되고 매월 1회 저녁 식사와 함께 창작 공연을 감상하는 디너쇼를 선보이는 등 시기별 특별한 이벤트들도 진행된다.

금소마을의 첫 여행상품인 금양연화를 선보이는 임방호 회장은 "여러 고택과 때 묻지 않은 자연 속에서 현대적 여행 트렌드와 예술적 감성을 경험할 수 있는 일정으로 기획했다"라며 "마을을 찾아주시는 손님들이 하룻밤을 보내며 아름다운 순간들을 경험하고 마음 깊은 곳에 담아가길 바라는 금소 주민들의 바람을 담으면서 점점 사라져 가는 안동포의 전승과 보존,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안동포 할머니들에게 다시 예전의 금양연화를 돌려드리고 싶은 진심을 담았다"라고 전했다.

금양연화 상품 문의 및 예약은 블로그(blog.naver.com/geums085)에서 가능하며 14일부터 오는 10월 26일까지 매주 금·토요일·토·일요일 1박 2일 예약 및 평일 20인 이상 단체 예약이 가능하다.

오명수 기자oms7227@nate.com



민주평통 봉화협, 통일골든벨로 지식 '쑥쑥'

봉화·한국궤도·산림과학고 참가 청소년 역사·통일·공감대 형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봉화군협의회는 지난 10일 '2024 청소년 통일골든벨 봉화군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봉화군 지역 내 봉화·한국궤도·한국산림과학고 학생 100명이 참가한 첫 번째 대회로 열기가 뜨거웠다.

김해동 협의회장은 "이번 대회는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역사의식을 고취 시키고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글로벌 외교의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자 마련했다" 말했다.

박한국 군수는 "청소년 여러분들의 바람직한 통일관과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 준비한 이번 대회를 통해 통일미래세대 여러분의 통일 공감대 형성

에 지속적 관심과 도움을 지원할 것을 약속 드린다"며 "(사)봉화군 교육발전위원회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날은 권혜자 봉화교육장을 비롯한 여병태·김동상·윤정란 교장들과 김상희 군의회 의장, 황민익·김옥량 의원 등이 참석해 지역 리더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통일소통'의 장이 되기도 했다.

한편 '2024 청소년 통일골든벨 봉화군대회' △최우수상은 한국산림과학고 강신재군 △우수상은 한국산림과학고 김현우군 △장려상은 한국산림과학고 송수민·강하은, 봉화고 이지호·이가은·여서연양이 수상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봉화군협의회는 오늘 수상자를 포함해 선발된 40명의 학생들과 12일 '2024 경북지역 청소년 통일골든벨' 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다. 정희영 기자jhy4430@hanmail.net

의성군, 정착 외국인과 '소통의 장' 마련

지역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

의성군은 지난 9일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으로 정착한 외국인과 동반 가족들을 대상으로 지역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탐방은 외국인들이 앞으로 정주하게 될 지역의 대표적인 역사와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지역의 뿌리와 자력을 확인하는 한편 정착한 이들과 주기적인 만남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8월에는 '어서와-의성은 처음이지?'라는 주제로 의성의 대표 명소인 고운사, 조문국박물관, 방계계곡을 탐방했으며 올해는 '신라! 천년역사 속으로'라는 주제로 신라의 수도인 경주를 방문해 불국사, 동궁과 월지, 대릉원 및 천마총을 둘러보며 신라문화의 가치와 매력을 체험하는 일정으로 진행했다.

의성군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으로

전국 각지의 외국인 25명이 지역 내에 취업해 지역특화형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했으며 가족까지 포함하면 총 40명이 의성군에 정착해 생활하고 있다.

올해에도 오는 9월까지 지역에 정착할 외국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앞으로 가족 초청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다수 있어 정착 외국인 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준비된 땅 상주!

입지, 교통, 인프라, 탁월한 미래까지
상주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군사수도 건설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된 군사시설 최적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군사시설 최적지 상주!

최적의 입지와 교통

국토 중심부에 위치하여 전국 2시간 이내의 접근성, 중부내륙철도 개통(예정)으로 더 빨라진 KTX역세권

원스톱 지원과 풍부한 인프라


이전사업 TF팀의 원스톱 지원과 교육, 의료, 관광, 문화, 일자리까지 부족함 없이 누리는 민군상생협력타운 건설

군사훈련 최적지

너른 평지와 저렴한 공시지가, 다양한 지형을 조화롭게 갖춰 전술적인 훈련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부지

결집된 유치 의지

법시문 유치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주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군사시설 이전 유치 홍보활동 전개



상주시
SANGJU CITY

청정자연의 고장 '금수강산면' 새 이름 달았다

성주 금수면, 행정구역 명칭 변경 브랜드화 통한 지역 발전 도모 주민등록·간판 등 신속 정비로 면민·관광객 불편 최소화 '박차'

성주군은 오는 8월 1일부터 '금수면'의 행정구역 명칭을 '금수강산면'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성주군은 지난 7일 성주군의회에서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위해 '성주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금수강산면'으로 명칭변경을 시행할 예정이다.

군은 '금수강산'이라는 차별화된 지명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고장이라는 행정구역 명칭 브랜드화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금수면'의 행정구역 명칭



을 '금수강산면'으로 바꾸는 행정절차를 추진해 왔다. 지난 3월 금수면 명칭변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토론회 등 주민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금수면 주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70.3%가 설문에 참여했고 이 중 99.5%가 찬성해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명칭변경을 추진했다. 성주군은 오는 8월 1일 조례 시행일에 맞춰 가족관계, 주민등록 등을 정리하고 간판과 안내판 등의 시설물을 정비해 명칭변경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병환 군수는 "금수강산이라는 지

명의 긍정적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행정구역 명칭변경이 성주 미래 100년, 성주호 일대 관광단지 조성과 연계한 지역발전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

불꽃 튀는 온라인 한판 승부 상주, e스포츠대회 '성공적'

LOL·FIFA·배틀그라운드 3종목 타로·드론축구 등 부대행사 다채

상주시e스포츠협회는 지난 8일 상주 실내체육관에서 '제3회 상주곶감배 e스포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 종목으로 리그오브레전드(이하 LOL), 피파 온라인, 배틀그라운드 총 세 가지로 나눠 진행됐으며 16강부터 결승까지 이뤄짐에 따라 대회 참가자 선수들, 공연팀 등 200여명 모여 진행됐다.

또한 게임대회 이외에도 타로, 체험부스, 드론축구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시민들을 즐겁게 했다.

남성구 협회장은 "e스포츠에 관심과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오는 7월에 개최되는 제17회 경북도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강영석 시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e스포츠가 향후 아시아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바 있다"라며 "최근 LOL 월드 챔피언십 대회에는 1만명이 넘는 관중이 모여 e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엄청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열기가 상주곶감배 e스포츠대회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e스포츠대회를 통해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하고 건강한 게임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구미시, 우리밀 주요 거점도시로 '발돋움'

밀+콩 이모작 기계화 연시회

구미시 농업기술센터가 11일 옥성면 초곡리 일원에서 밀+콩 이모작 기계화 연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시회는 농촌의 인구감소, 쌀 소비패턴의 변화에 우리밀 자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코자 마련됐으며 밀·콩 재배농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밀 수확 후 밀짚 파쇄, 배수 개선, 콩 정밀파종 방제 등을 이용한 밀·콩 전 과정의 기계 작업을 선보였다.

구미시는 쌀 공급 과잉으로 밀·콩 전량의 하나로 밀+콩 이모작 작부체계를 확립해 밀 재배로 유도하고 제면용, 제과용, 제빵용 등 소비자 맞춤 품종 및 재배단지를 조성해 식량작물 안정생산

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20~30ha 작목반 형태의 협업체계도 구축해 대규모화 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과 농업인이 협업하는 구미밀산업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우리밀 생산·가공·홍보·판매체계 구축으로 우리밀 자급화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영혁 소장은 "우리밀 제빵에 적합한 품종도입과 품질관리를 통해 구미시가 우리밀 중요 거점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일 소상공인과 농업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좋은 밀 생산 및 제품만들기 결의 낭독 및 퍼포먼스 △우리밀 품질 등급 검사 시연 △우리밀 첫 수확 등을 진행한 바 있다.

박익분 기자ub0104@hanmail.net



몸·맘 힐링하는 '김천 농촌체험관광' 인기

일상 스트레스 해소, 심신 안정 기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웃음꽃 활짝

김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10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역 내 농촌체험농장에서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촌 체험관광'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촌체험관광'은 소비자에게 김천 지역 내의 농촌체험관광 농장을 소개하고 농장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일상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힐링을 통한 심신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했으며 이날 35명의 체험객이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전에는 남면 월계리에 있는 마고촌에서 도자기 만들기 체험을 시작으로 잘 가꾸진 정원에서 식사하고 오후

에는 구성면 월계리에 있는 장만나는 치유 카페로 이동해 고추장 만들기, 추석의 사라다빵 만들기 등을 진행, 체험객의 얼굴에는 프로그램 진행 내내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정한열 소장은 "김천에는 20개가 넘는 농촌체험관광 농장이 있다. 하반기에도 3회 정도 농촌체험관광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하반기에도 많은 분이 참여해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상반기 농촌체험관광을 시작으로 오는 하반기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생이 부모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농촌 체험관광과 임신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농촌체험관광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광수 기자kgs5149@naver.com



임소문 탄 '금오산·라면축제' 한번에 즐기자

금오산케이블카승강장매점내 '금프라우' 조성

구미시가 금오산케이블카 승강장 매점 내 구미라면축제 포토존 일명 금프라우를 조성했다.

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개최되는 '2024 구미 라면축제' 홍보와 함께 금오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포토존은 팝업스토어 등에서만 볼 수 있는 인기 컵라면 모양의 테이블과 구미라면축제 캐릭터(부기&누디), 엠블럼 포토존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자연에서 만나는 이색 포토존이라는 입소문을 타고 금오산에 한층 더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많은 방문객이 찾을 수 있도록 이달 한 달간 금프라우를 방문해 본인

SNS에 업로드를 인증하는 이벤트를 열어 100명에게 커피 기프트콘과 라면 굿즈 등의 경품을 지급한다. 아울러 '2024 구미라면축제'에 대한 관심이 축제를 기간까지 지속되도록 다양한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구미라면축제는 2024~2025 경북도 우수 지정 축제로 선정돼 독창적이고 유일한 라면 테마가 도시브랜드로 새롭게 인정받았다. 큰 인기를 얻은 오직 구미에서만 맛볼 수 있는 '갯 튀김 라면'을 매주 금·토·일요일 구미역 인근 분식점 덕동김밥·운스김밥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로컬과 연계하는 등 새롭게 도시를 브랜드링하고 있다.

박익분 기자ub0104@hanmail.net

고령 치매환자쉼터 2기 운영 소외지 지역주민 접근성 UP

고령군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매주 월·화·수요일(총 24회)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쉼터를 운영한다.

치매쉼터 '아름다운 기억학교 2기'는 1기반에 이어 2기반으로 운영되며 치매 증증화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인지 자극 미술 프로그램, 음악활동, 인지훈련 등 증상 악화를 지연시킬 수 있도록 돕는 인지재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산면 단기치매쉼

터에서 운영돼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다산면 지역주민들의 접근성 강화를 높였다.

프로그램 참여자 윤모씨는 "집 가까이 있는 단기치매쉼터에서 기억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말했다.

김관수 군 보건소장은 "경증 치매환자 자로 장기요양급이 없거나 장기요양 등급이 있지만 서비스 이용 대기자 및 이용을 보류하고 계시는 분은 참여가 가능하며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인지건강을 위한 치매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

아이비투어
대표 김재욱

경주시 용강동 1533
에이치타워 204호
☎ 0507-1374-7755

강산렌탈
대표 최성훈

경주시 천북면 동산덕산길 5
☎ 054-776-9310

마호기획광고
대표 이재희

☎ 010-3857-1111



울릉도 지킨 독도의용수비대원 님 기린다

독도 6·8사건 유족과 토론회
살풀이·제의·축문 낭독 거행

울릉군 (사)푸른울릉독도가꾸기회 독도재단은 지난 8일 독도 현지에서 1948년 6월 8일 독도에서 조업 중 미(美) 공군폭격으로 억울하게 숨진 어부들과 독도를 지키다 순직한 경찰관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위령제를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희생자 유족, 경북도, 울릉군, 독도재단, 대구지방변호사회, 독도학회, 대구비룡라이온스, 대구동구회 등이 참가·후원으로 고인의 넋을 기렸다.

너울무용단(허영아, 김은아, 정소

운)의 넋을 기리는 살풀이를 시작으로 지역 종교지도자(불교 등)가 참여했으며 영혼을 달래는 불교 예불과 (사)푸른울릉독도가꾸기회 회장 정석두, 김상복 유족대표 등의 제의 및 축문 낭독 등을 거행했다.

위령제 전날 독도 6·8사건과 시민사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군청 회의실에서 유족 및 전문가 20여명이 참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남한권 군수는 “이번 전문가 토론회

에서 그동안 성과를 되돌아 보고 앞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전개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gst3000@naver.com

청도 새마을회 “저출생과 전쟁 필승 기원”

십시일반 모은 ‘735만원’ 기탁

청도군은 11일 (사)청도군 새마을회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성금 735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사)청도군 새마을회는 새마을운동 발상지 청도의 새마을단체로서 해마다 새마을 환경살리기, 흙살리기 운동, 사랑의 김장나누기 및 사랑의 집 고쳐주기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전인주 회장은 “청도군 새마을4단체 735명 전 회원이 적극 동참해 청도군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성금 1만 원씩을 모아 총 735만 원을 기탁함으로써 청도군 저출생 극복에 새마을회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김하수 군수는 “평소 청도군정과 지



역사적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에 주신 데 이어 저출생 극복 성금 모금 캠페인에도 새마을회가 적극 동참해 주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저출생과 전쟁”에서 청도군이 필승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마을회가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병열 기자artmong0@naver.com

울진군, 성류굴의 역사·문화 가치 ‘재조명’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와 맞손 성류굴 명문 전수조사 대행사업 신라~조선시대 명문 70점 확인 관련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주목 2027년에 종합 보고서 발간 계획

울진군은 지난 10일 군청 접견실에서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와 성류굴의 역사·문화 가치 조명을 위한 ‘성류굴 명문 전수조사 대행사업’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울진군의 성류굴은 최근 자연유산으로서의 그 가치에 이어 역사·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또한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각 계층의 사람들이 동굴에 새겨놓은 명문 70여점이 확인됐고 특히 신라 진흥왕이 성류굴을 다녀갔다는 내용이 발견돼 역사·문화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울진군은 성류굴 명문을 보존 및 관



리하고 그 가치를 알리기 위해 국가유산청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4년 계획으로 대구·경북권의 문화유산 조사·연구의 중추 기관인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와 협약해 과업을 진행한다.

올해부터 오는 2025년에 걸쳐 명문

전수조사와 사진 촬영, 3D 스캔작업을 실시하고, 2026년에는 공개 판독회와 학술 세미나 등을 개최해 2027년에 종합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손병복 군수는 “성류굴 명문 전수조사 사업을 통해 성류굴이 자연유산에 이어 역사·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증대될 수 있도록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리며 군에서도 성류굴이 자연과 역사·문화가 함께하는 동굴 명소이자 국가유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상주 기자ksj09102@naver.com

영천시,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 청년 도와… 도내 최초

장학재단과 사업 업무협약 체결 지역 6개월 이상 거주 청년 대상 조기상환 지원금 ‘최대 100만원’

영천시가 경북도 내 최초로 한국장학재단과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지원 사업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지원사업은 “2023년 영천시 청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작으로 선정된 사업이다.

이는 학자금 장기 연체로 인한 신용저하로 대출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신용회복 지원사업과 성실 변제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금 조기상환 지원사업으로 마련됐다.

11일 영천시에 따르면 신용회복 지원사업은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 체결한 청년을 대상으로 도입금 최

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 약정 체결 후 일정 기간 이상 성실 변제자를 대상으로 조기상환 지원금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업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 영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자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연체로 인해 신용도 판단정도가 등록된(기존 신용불량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최기문 시장은 “이번 학자금대출 장

기연체자 지원사업으로 대출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신용 회복의 기회와 성실 변제자를 대상으로 한 조기상환을 지원할 것”이라며 “청년들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 재기와 안정적인 자립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영천시는 청년 행복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정식열 기자jsy92920@hanmail.net

“존중·배려하는 공직문화 함께 만들어요”

포항시, 양성평등 실천 서약식

포항시는 11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성차별 없는 양성평등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존중 언어 사용 △세대 차이 존중·배려 △사생활 침해 및 간섭하지 않기 △일상 속 성인지 감수성 향상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양성평등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직문화 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시는 이달 초 조직 내 성차별적 관행을 없애고 일하기 좋은 안전한 직장문

화 만들기의 하나로 4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양성평등 공직문화 조성 홍보 영상을 제작한 바 있다.

이 영상은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존중과 배려의 직장문화 만들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직원 대상 폭력 예방 교육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강덕 시장은 “이번 서약식을 통해 양성평등 공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주도하는 간부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예방 노력과 함께 솔선수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연태 기자cyt4568@naver.com

경산 리틀야구단, 전국대회 ‘준우승’

경산시 리틀야구단은 ‘제4회 태백시 장기 전국리틀야구대회’에서 우수한 경기력과 단합된 조직력을 앞세워 준우승을 차지하며 전국구 최강팀의 면모를 또 한번 과시했다. 이번 대회에서 경산시 리틀야구단은 16강전 4대 3(vs 경기군포), 8강전 2대 0(vs 서울송파B), 준결승전 7대 2(경기분당B)로 상대를 차례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마지막 날 치러진 경기남양주리틀야구단과의 결승에서 경산시 리틀야구단은 선발투수 김유건의 호투가 빛났지만 1점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4대 5로 아쉽게 패해 준우승에 만족했다. 결

승전에서 활약한 투수 김유건은 개인 부문 장려상, 경산시 리틀야구단 서상 우 감독이 대회 감독상을 수상했다.

경산시 리틀야구단은 야구 꿈나무 육성을 위해 지난 2009년 창단 후 꾸준히 성장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7월 ‘제1회 경산시장기 전국리틀야구대회’ 우승 등 전국단위대회 우승 2회, 대구경북단위대회 우승 4회 등 물론 실력을 선보였다. 조현일 시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중한 결실을 보고 있는 경산시 리틀야구단 선수들에게 축하를 드린다”고 전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정동식

경주시 원화로 285 3층
☎ 054-771-3344

한국대중음악박물관
부관장 도인숙

경주시 엑스포로 9
☎ 054-776-5502

윤영선 조리명인의
평양갈비

경주시 원효로 105번길 10
☎ 054-774-5445

무더위 날리는 '기흥안뜰공원 물놀이장' 오픈

영주, 22일부터 시범 운영 돌입
분수·터널 등 즐길 거리 한가득
어린이집 대상 사전예약 실시
도심공원 내 물놀이 기회 확대



영주시는 무더위를 날려버릴 도심 속 피서 공간 기흥안뜰공원 물놀이장을 오는 22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총 8회의 시범운영(△6월 22일, 23일, 29일, 30일 △7월 6일, 7일, 13일, 14일)을 거쳐 7월 20일부터 8월 16일까지 정식 개장한다.

영주시는 12일부터 오는 7월 19일까지(기간 중 수·목·금요일) 어린이집 대상 사전예약제(시 홈페이지 통합예약서비스 선택순 예약)를 운영해 영유

아들에게 도심공원 내 물놀이 체험 기회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물놀이장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운영하고 1시간 휴게시간

을 가진 뒤 오후 2~4시까지 2시간을 운영한다. 이용 대상은 12세 이하 어린이로 보호자가 필요한 영유아는 보호자 동반 입장이 허용된다. 또한 물놀이장

은 운영시간 30분 전부터 현장 접수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620㎡ 규모의 물놀이장에는 해적선 모양의 물놀이조합대가 설치돼 있으며 대형 버킷과 우산 분수, 워터 터널 등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세족장과 간의 탈의실을 설치하고 일부 시설물을 재정비해 이용객들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영주시는 안전요원 배치, 정기적인 수질검사 등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상철 공원관리과장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운영관리를 쾌적하고 안전한 물놀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여상 기자btk01410@naver.com

피재윤 선수, 5년 연속 태극마크 가슴에

구미대 스포츠지도과 2학년 선발
전국가라테선수권대회 1위 차지
남다른 피지컬·뛰어난 재능 주목



구미대 스포츠지도과 2학년 피재윤 선수가 가라테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피 선수는 지난달 19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충북도 제천 대원대학교에서 열린 '제1회 청풍명월배 전국가라테선수권대회 겸 2024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75kg 이하 급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에 피 선수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이번 국가대표 선발에 따라 피 선수는 오는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아가라테선수권대회'와 11월 스페인에서 개최되는 세계선수권 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피 선수는 세계대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1월 파리에서 열린 가라테프리미어리그에서 3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 대회는 세계 랭킹 50위권 선수들에게만 출전 자격이 부여되고 있으며 세계 랭킹 28위인 피 선수는 상위 랭커들을 누르고 당당히 세계 3위에 이름을 올렸다.

188cm인 피 선수는 75kg(이하) 급에서 피지컬이 우세하고 운동에 대한 재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김승 스포츠지도과 학과장은 "이제까지 구미대는 가라테 종목에서 4명의 국가대표를 배출했다"며 "대한민국과 구미대의 위상을 드높인 피재윤 선수가 졸업생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특기는 앞손치기, 앞발차기, 그리고 뛰어난 동체체력이 꼽힌다.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피 선수는 오는 2026년에 개최될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의 메달획득 유망주로 손꼽힌다.

피 선수는 "가라테 종목이 외국에서는 두터운 선수층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비인기 종목으로 선수들이 힘들게 운동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승 스포츠지도과 학과장은 "이제까지 구미대는 가라테 종목에서 4명의 국가대표를 배출했다"며 "대한민국과 구미대의 위상을 드높인 피재윤 선수가 졸업생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익분 기자ub0104@hanmail.net

청송군·새마을회 "올바른 분리배출로 일회용품 줄여요"

새마을 환경 살리기 행사 개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 홍보

청송군은 청송군새마을회와 협업체 지난 7일 새마을 환경 살리기 행사에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 집중 홍보'에 나섰다.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투명페트

병 별도 배출제'는 무색투명한 생수, 음료 페트병의 내용물을 깨끗하게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후 압착해 일반 플라스틱과 분리해 전용수거함이나 별도로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제도이다.

깨끗하게 배출된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하면 의류, 가방, 신발 등을 만들 수 있어 지난 2021년부터 분리배출이 의무화되고 있다.

또한 청송군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및 일회용품 줄이기 안내서를 나눠주며 분리수거 방법과 일회용품 줄이기 방법을 알리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한편 군은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 정착을 가속화하고 시민인식 개선을 위해 이달 말까지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 집중 홍보기간' (4월 20일~6월 30

일)을 운영하고 있다.

윤경희 군수는 "투명 페트병은 이물질 함량이 낮아 순도가 높을수록 고품질로 재활용할 수 있어 시민 참여가 필수적이다"라며 "순환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울려라 안전골든벨~

예천군, 호명초 어린이 퀴즈쇼
소화기 사용법 등 안전교육 진행

예천군은 지난 10일 오후 호명초등학교에서 '2024년 안전골든벨 경북도 어린이 퀴즈쇼' 예선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지역 내 초등학교 4학년~6학년 15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생활 속 안전 상식 등 열띤 퀴즈 대결을 펼쳤으며 예선소방서에서 응급처치 교육 및 소화기 사용법 등 소방안전교육을 함께 진행했다.

이번 예선 대회에서 금상 등 수상자들과 예선통과자 30여명은 하반기에 개최되는 '안전골든벨 경북도 어린이 퀴즈쇼' 예천군 대표로 참가한다.

김학동 군수는 행사장에서 학생들을 격려하며 "각종 사고와 재난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생활 속 위험 상황들에 대한 인지 대처 능력을 키우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 의식을 정립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어린이 안전이어로

즈 및 각종 안전 문화 행사와 캠페인 등을 추진해 '안전 예천'을 구현할 수 있

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안동농협, 호잔치로 원로조합원 노고 '감사'

안동농협은 지난 8일 농협의 근간이 돼주신 원로조합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그분들의 헌신과 기여를 기리기 위해 원로 조합원 호잔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사회의 화합과 전통 문화인 호의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마련됐다.

호잔치는 안동 탈출원형경기장에서 73세이상 원로조합원 1500여명 및 직원, 자원봉사자(영농회장, 청년부, 농가주부모임, 고향주부모임 회원들) 포함 2000여명이 참여했으며 권기창 시장, 김형동 국회의원, 김경도 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도의원 및 시의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줬다.

행사내용은 1500명 원로 조합원분들께 정성들여 차린 음식으로 식사 대접을 하고 지역 예술가와 함께하는 전통 공연과 축하 공연으로 즐거운 추억의 시간이 되도록 진행됐다.

권태형 조합장은 "우리 농협이 오늘 날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원로 조합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다. 이번 호잔치는 그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도록 마련했다"라며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농협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명수 기자oms727@nate.com

더블에이치플랜

DHP

종합이벤트 기획 · 연출 · 진행

대표 현병희

Mobile : 010-3517-1105

E-mail : hbh0912@naver.com

경북 경주시 양정로 235(동천동) 덕양빌딩 7층

한수원, 루마니아 2600억 규모 원전설비 착공

자사 최초 유럽 EPC 사업 진출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 착공식
콘크리트 타설 등 건설 단계 거쳐
시운전 후 2027년 9월까지 준공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참여한 '루마니아 체르노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사업' 착공식이 지난 10일(현지 시각) 루마니아 체르노보다 원전 현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황주호 사장을 비롯해 임갑수 루마니아 대한민국 대사, 코스민 기짜(Cosmin Ghita) 루마니아 원자력공사(SNN, 발주사) 사장, 루마니아 규제기관 원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삼중수소제거설비는 중수로 원전 가동 시 발생하는 방사성물질을 포집하



2024. 6. 10. HYUNDAI SAMSUNG SAMSUNG CAT
체르노보다 삼중수소제거설비(CTRF) 본공사 착공

는 설비로서 이번 사업은 한수원이 월성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 시장에 최초로 진출한 EPC(설계·조달·시공) 사업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6월 발주사와 계약을 체결, 현지 사업수행을 위해 올해 3

월 체르노보다 건설소를 발족했고 5월 22일 규제기관의 건설 허가를 받았다. 앞으로 부지 정리 및 최초 콘크리트 타설 등 건설 단계를 거쳐 시운전 시험 후 오는 2027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약 2600억원 규모다.

황주호 사장은 "제때 착공하기 위해 노력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며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루마니아 정부 발주사 및 협력사들과 더욱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경규기자seoul411@hanmail.net

황병우 DGB금융 회장 미국行... 첫 해외 IR

10~14일 미 주요 도시서 설명회
경영진과 자사주 총 16만주 매입

황병우 DGB금융그룹 회장이 DGB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시중금융그룹으로서 변화를 시작한 만큼 책임경영 강화와 주주 가치 제고에 적극 나선다.

DGB금융그룹은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5일간 미국 주요 도시에서 주요 주주와 잠재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IR은 지난 3월 28일 황병우 회장 공식 취임 이후 약 3개월 만으로 그룹의 중기 전략 추진과제 중 하나인 '주주 가치 극대화'를 위한 첫 번째 행보이기도 하다.

황병우 회장은 주력 계열사인 DGB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직접 진두지휘한 만큼 시중은행으로서의 포지셔닝 전략을 직접 소통할 예정이며 그룹의 내실 있는 핵심 성장전략 등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해외 IR에 앞서 황병우 회장은 DGB 금융지주와 DGB대구은행 경영진을 비롯한 전 계열사 경영진과 함께 자사 주 총 16만주를 장내 매입했다. 그룹 차원에서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주주 가치 향상에 힘쓰는 한편 전국구 도약에 따른 성장 드라이브를 내기 위해 자사주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그룹 관계자는 "CEO 공식 취임 이후 처음 이뤄진 자사주 매입으로 시중금융그룹으로 새출발하는 만큼 주가 부양과 기업 가치 제고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피력한 것"이라며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만큼 저평가되고 있는 주가 부양과 주주친화정책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IR 역시 주요 경영현안에 대한 주주와의 쌍방향 소통 강화와 이를 통한 향후 균형감 있는 경영 의사결정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시장 참여자와 신뢰 구축을 위해 꾸준한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두용기자kwondrumkakao@daum.net

창업기업 성장 돕는 '대구 Post C-Lab' 서 꿈을 이루세요

17일까지 참여기업 4개 사 선발
사업화 자금 최대 5000만원 지원

대구시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대표 창업기업으로 발돋움할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대구 Post C-lab' 참여 기업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

'대구 Post C-lab' 사업은 창업기업이 초기 단계를 넘어 성장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 4개 사를 선발해 △기업당 최대 5000만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 지원과 더불어 △투자유치

IR 연계 △연구개발(R&D) 과제 추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수기업의 경우 '삼성전자 C-Lab Outside 대구'와 '2025 CES 전시 참가 지원' 후보로 추천해 지역의 대표 창업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민선8기 출범 이후 대구시가 중점 지원하는 5대 미래산업(ABB, 로봇,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헬스케어) 분야 외에도 신사업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대구(본사 기준)를 기반으로 하는 7년 이내 창업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삼성전자와 협업한 지역 대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대구 C-lab'을 운영 중인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팀과 함께해 다년간 축적된 창업기업 보육 노하우(know-how)와 네트워크 풀(Pool)을 전수하게 된다. 한편 대구 C-lab은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대구시의 대표적인 창업 육성 프로그램으로 ㈜쓰리아이와 에이팀(기업 가치 1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기업으로 선정됐고 ㈜닥터테일, ㈜지오로봇, ㈜도구공간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선정됐으며 ㈜쓰리아이, 벨류엔드

러스트루, 엘로스시프 등은 CES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지역 창업기업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대구 창업허브(Startup.daeg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C-lab팀(053-759-8617)으로 하면 된다. 최운백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두용기자kwondrumkakao@daum.net

고령군, 청년 행복 임대주택 입주 대상 모집

월 1만원 임대료로 4년까지 거주

고령군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고령군 청년 행복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오는 17일~27일 11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은 총 9세대로(49.11㎡ 3세대, 42.51㎡ 6세대) 구성돼 있으며 냉방, 에어컨, 세탁기 등이 구비돼 있을 뿐만 아니라 시중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월 1만원의 임대 조건으로(보증금 88만원 별도) 최장 4년 동안 거주 가능하다.

젊은 고령, 힘 있는 고령의 군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민선8기의 핵심 공약 사업인 이번 사업의 신청자격은 18~45세 청년 1인가구와 신혼부부로 공고일 기준 고령군민이거나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외지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일에서 7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제외 대상자는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 공무원 및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도 포함) 등이며 중복 수혜 등을 차단에 청년 주거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고령군은 아울러 입주 대상자의 편의와 선택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 주택을 1, 2차에 나눠 개방을 실시할 계획이며 △1차는 오는 14일, 15일 오전 11시~오후 2시(3시간) △2차는 21일, 22일 오전 11시~오후 2시(3시간) 각각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 및 접수는 17일부터 27일까지 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054-950-6589)으로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군은 대상자 9세대를 선정할 계획이며 호실은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배정 후 오는 8월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할 예정이다. 이남철 군수는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정책을 펼쳐 언제나 청년 여러분의 삶과 함께하는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일호기자hoyai515@daum.net

(주)태왕, 기술력·시공 능력 입증

경남농기원 등 이전 공사 수주

(주)태왕을 중간사로 한 태왕 컨소시엄이 '경남도 농업기술원 등 이전사업 조성공사'를 299억5500만원에 수주했다. 경남개발공사는 경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대천리와 가산리 일대 57만2131㎡의 단지를 조성하는 이번 '경남도 농업기술원 등 이전사업 조성공사' 시공사로 태왕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특히 (주)태왕은 진주와 사천 일대에서 △사천IC 복합유통상업단지인 '사천 스카이스터' 조성공사 준공 △한국

항공우주산업(주)의 회전익 비행센터 공사 수주(309억1000만원)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의 'KAI 제2격납고 신축공사' (241억6700만원) 등 굵직한 공사를 수행하며 지역 내 기술력과 시공 능력을 인정받은 데 따른 값진 결과다. 노기원 회장은 "신뢰와 정도경영을 바탕으로 공사를 수행하다 보니 신규 수주가 연달아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주)태왕 가족은 지역사회와 발주처가 만족할 만한 시공품질로 보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 농업기술원 기공식은



12일 오전 10시 30분 농업기술원 이전 부지에서 농업부 장관 등 참석자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강두용기자kwondrumkakao@daum.net

기부하고~ 혜택받고~ 고향살리고~

칠곡군 고향사랑 기부제

2023년 1월 1일 처음 시행하는 고향에 기부하면 혜택을 돌려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더 큰 지역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기부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칠곡군이 아닌 칠곡군을 응원하는 누구나

기부방법

- 온라인: 고향사랑 기부시스템(PC/모바일) - [고향사랑e음](#)
- 오프라인: 전국 농협은행 대면접수(※신분증 지참)

기부혜택

-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 기부금의 30%내 지역특산물 제공

답례품

농특산물, 전통·가공식품, 지역상품권 등

기부 바로가기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민 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 문의 | 칠곡군 세무과 ☎ 054-979-6244

의성,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호응'



의성군은 춘산면에 위치한 목재문화체험장에서 다양한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강사진으로 구성된 체험장에는 경북도 목철공예 최고 명장인 김복연 명장이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목적 플레이팅 도마, 디자인 벽시계, 휴대폰 거치대 등 50여종의 소재와 특허 등록된 체험 소재로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목재 제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또한 목재문화체험 활성화를 위해 체험장 방문이 어려운 교육생들에게 체험장과 동일한 환경으로 찾아가는 방문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정성수기자power5151@naver.com

청도 유전초, 책이랑 연극이랑 놀자



청도군 유전초등학교는 2024년 청도교육지원청의 특색 사업인 '온독서로 마음 숲 가꾸기' 운영에 따른 책이랑 연극이랑 놀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책이랑 연극이랑 놀자! 프로그램은 책 놀이 전문강사인 이소영 선생이 진행했다. 1차시에는 '내 마음 사슴'라는 주제 도서로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를 알고 자신의 감정을 초성으로 나타내어 숨은 감정을 깨워 자기 언어로 풀어내게 했다. 2차시에는 '오늘은 오늘에 플리에부터'라는 주제 도서로 공작새 깃털, 보자기, 풍선을 오브제로 활용해 연극을 하기 위한 예술 놀이를 체험했다. 3차시에는 '홍내쟁이 동물들'라는 주제 도서로 퀴즈 놀이와 율동 활동을 진행하고 4차시에는 '보물찾기'라는 주제 도서로 자신의 보물들과 여행을 떠나는 활동을 한다. 김병열기자artmong0@naver.com

영주제일고, 전국사이클대회 '종합단체 1위'

박준선, 최우수선수 선발
윤석현, 최우수 신인선수



영주제일고등학교는 지난 4일부터 7일간 음성 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된 2024년 음성 전국사이클대회에서 종합단체 1위(금3, 은1, 동2)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날 스프린터 부문에서 3학년 박준선 선수가 부별 신기록 및 대회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으며 스프린터 부문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던 박준선 선수는 최우수선수로 선발됐다.

또한 1학년 윤석현 선수는 단체스프린터 및 경륜경기에서 1위를 했으며 1km 독주경기에서는 아깝게 2위를 함과 동시에 최우수 신인선수로 선발됐다.

스프린터 경기에서 3학년 김현우 선수는 단체 금메달 및 개인 동메달을, 제의 경기에서 1학년 김세원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했으며 단체종합 1위라는 저력을 보여줬다.

대회 2관왕을 차지한 박준선 선수는 오는 8월에 있을 세계주니어 선수권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김동삼 사이클부 감독은 "학생들이 꾸준한 훈련과 노력으로 값진 성과를 이뤄 냈다. 열심히 땀 흘린 선수와 코치는 물론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동삼 기자bk01410@naver.com

두아 에프엔에스, 영양고추 가공 고추장 기부

농업회사법인 두아 에프엔에스는 11일 영양군에 영양고추로 가공한 고추장(600만원 상당)을 기부했다.

농업회사법인 두아 에프엔에스는 영양군의 특산물을 직접 및 계약 재배, 가공, 판매하며 고추와 사과 등을 원료로 한 다양한 가공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다.

특히 토종 고추 품종인 수비초로 만든 고춧가루와 고추장을 백화점과 입

점 계약해 납품하는 등 농가소득 향상 및 홍보에 앞장서고 영양군 특산품 최초로 2024년 경북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김태범 대표는 "앞으로도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눔문화를 지속하는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기부 소감을 전했다.

김경태 기자tae6611@naver.com



예천, 저출생극복 성금 모금캠페인 '힘 보태'



예천군 공직자들은 지난 10일과 11일 저출생극복 성금 모금캠페인에 한마음 한뜻으로 모은 성금 160만원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기부금은 예천군청 실·과·소장과 읍·면장들이 저출생극복을 위한 모금 활동에 솔선수범하고자 모금했으며 기부된 성금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

한 사업비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예천군에서는 경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선포(2024년 1월 18일)'에 따라 저출생극복을 위한 성금모금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 '온 국민이 함께하는 만원(이상) 기부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청송양수발전소 사회봉사단, 환경정화 활동



한국수력원자력㈜ 청송양수발전소 사회봉사단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해 지난 5일 청송군 웅천천 하천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청송양수발전소 사회봉사단 약 150여명은 지역하천의 환경보전을 위해 웅천천에 버려진 담배꽂초, 패트병, 비닐 등 하천변 쓰레기 수거활동을 전

개했다. 김경민 소장은 "환경 보호는 우리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 중 하나이며 '세계 환경의 날' 정화활동을 통해 발전소 직원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고 했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동 정

AI·디지털융합 교육혁신 MOU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12일 11시 30분 경북대학교에서 개최되는 AI·디지털 융합 교육혁신 플랫폼 사업 협약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민원 해결 추진현황 보고회 참석



권기창 안동시장은 12일 오전 10시 읍·면·동 및 현장 소통행정 민원해결 추진현황 보고회에 참석한다.

청소년 통일골든벨 경북지역 본선



박남서 영주시장은 12일 오후 1시 30분 국민체육센터에서 진행되는 청소년 통일골든벨 경북도지역대회 본선에 참석한다.

별빛아카데미 참석·관계자 격려



오도향 영양군은 12일 오후 2시 문화체육센터 별빛아카데미에 참석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한다.

봉화군연합회 가족화합체육대회



박현국 봉화군은 12일 11시 봉화읍 체육공원에서 제30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봉화군연합회 가족화합체육대회에 참석한다.

문경새마을회, 열무김치 나눔 행사



문경시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0일 문경시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14개 읍·면·동 부녀·협의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열무김치 담그기 및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열무김치 나눔 행사를 위해 읍·면·동 새마을회장단들은 아침 일찍부터 양파, 열무 등 재료 손질을 시작으로 열무김치를 담그며 사랑과 정성이 가득한 열무김치 100여통을 읍·면·동 독거노인 가구에 전달했다.

박영신 부녀회장은 "사랑의 마음을 담아 만든 열무김치가 평소 음식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전달돼 작은 위안과 기쁨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고향에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 살리는 1석 3조

봉화군 → **기부자** → **지역생산자**

고향사랑 기부제

관할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기초)에 기부 가능

- ▶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법인 기부 불가)
- ▶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 ▶ 10만원 기부시 세액공제(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 16.5%)
- ▶ 기부자에게 답례품(기부금의 30%) 지급
- ▶ 쌀, 사과, 한우, 버섯, 고춧가루, 참·들기름, 전통장류, 오미자액기스, 육포, 유기, 봉화사랑상품권 등

봉화군 문의처 | 봉화군 재정과 (054-679-6542)



문경주흥자봉단원은 지난 10월 점촌4동 취약계층 3가구를 방문해 전기수리 재능봉사를 실시했다.

문경 출신으로 고향의 발전과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재능나눔을 실천하는 뜻으로 결성된 문경주흥자봉단원은 까베루(김태형), 오일미케닉(최창현), 플러스조명(신호성), 현대특수설비(홍호국), 피아모(최은주), 동천맑은약국(배진철) 등 1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해 다섯 번째 전기수리 재능봉사를 펼쳤다.

이날 봉사단은 거동 불편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취약계층 가정 3곳을 방문해 오래된 조명등을 철거하고 LED 조명 설치 및 노후 배선, 콘센트를 교체했으며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권태광 단장은 "화재 위험 등으로 불안했던 취약계층 가구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분들의 위해 다양한 봉사를 하고 싶다"고 전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의성전통시장상인회, 닭백숙 나눔



의성군전통시장상인회는 지난 9일 여름철을 맞이해 고객감사 닭백숙 나눔 행사를 의성공설전통시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성전통시장상인회는 행사 하루 전인 지난 8일 오전부터 닭백숙, 수육, 수박 등의 음식을 준비했으며 행사 당일에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상인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음식 배달, 테이블 정리 등 행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해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6월 중 휴일에 진행되는 닭백숙 나눔 행사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의성새마을금고의 후원을 받아 상인회에서 개최하며 이번 행사에는 고객들과 인근 주민들 300여명이 참석했다.

정성수기자power5151@naver.com

봉화, 버섯농업 전인할 전문가들 '힘찬 출발'

버섯학교 5기 수료생 25명 배출
재배이론·실습 등 체계적 교육



봉화군은 지난 10일 약용버섯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2024년 봉화버섯학교 교육'을 25명의 수료생과 함께 마무리 지었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한 2023년 버섯중급기능사 자격취득반까지 126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봉화버섯학교는 올해로 5기를 맞아 올해 3월 27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총 17회, 72시간의 교육을 진행했다.

2024년 봉화버섯학교 교육은 봉화군약용버섯중급센터의 준공과 발맞춰 영지·상황반, 느타리·노루궁뎅이반, 동충하초반으로 3개의 품목반별 전문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재배이론과 실습을 겸하는 체계적 교육으로 진행했다.

특히 약용버섯중급센터를 활용한 버섯 배지생산 및 점적·배양·생육관리 등 현장실습형 교육은 버섯을 처음 접하는 교육생들이 버섯재배 전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현장문제해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 교육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경북 도내 3곳의 우수 버섯농장 벤치마킹을 통해 봉화군 버섯산업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봉화군 버섯농가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신종길 소장은 "봉화군은 약용버섯 산업의 활성화와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 약용버섯중급센터를 중심으로 전문 버섯농업인 양성교육과 버섯재배사 지원을 통한 실질적 버섯농가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경산, 경북 지방세 체납분야 토론회 '우수상'

경산시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 분야 토론회에 참가해 우수상(김민우 주무관)을 받았다. 경북도에서 주관해 해마다 개최하는 이번 대회는 기존 발표 방식에서 벗어나 연구과제 제출자가 발표해 자유로운 토론으로 정보 공유와 실무능력을 향상하고 토론 참석자 전원의 평가로 우수 과제를 심사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지방세 체납자를 대위한 법원 공탁금을 주심한 사례를 선보였다. 보증공탁금에 대한 대위 담보취소 신청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내고 공탁금 회수청구까지 진행해 폐업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장기 압류 상태의 채권을 해결해 체납 정리에 기여하고 업무개선에도 노력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인정받았다.

김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상주, 청소년들 권익증진 앞장설 17인 선발



상주시는 지난 8일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상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발대식 및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지역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17명이 위촉됐으며 강화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앞으로 위원들은 청소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안, 청소년 프로그램을 듣고 그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수행할 예정이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iM뱅크, 영천 지역 인재 양성에 '출선수범'



영천시는 11일 iM뱅크에서 100만원의 장학금을 (재)영천시장학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iM뱅크는 지난 1967년 국내 최초 지방은행으로 출범한 이래 지역 경제와 금융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이달 초 지방은행에서 시흥은행으로 최초로 전환해

전국 은행으로서의 첫발을 내디뎠다. iM뱅크에서 개설하는 영천사랑통장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해마다 지역공익기금으로 적립해 이번 100만원을 포함해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총 6400여만원의 적립금을 기탁했다.

정식열 기자jsy92920@hanmail.net

예천 여단협, 양파 수확 '구슬땀'



예천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50여명은 지난 10일 풍양면 청곡리에서 '양파 수확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일손돕기는 본격적인 양파 수확철을 맞아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작업이 불가능한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권춘선 회장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회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농가에도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자 주민행복과장은 "앞으로도 여성 리더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본보기가 돼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각남면 생활개선회, 반찬 선물 '훈훈'



청도군 각남면 생활개선회는 지난 10일 사랑 사랑 나눔 냉장고에 삼계탕 등 반찬을 기부했다.

각남면 생활개선회 회원들은 해마다 이웃들을 위해 삼계탕, 김장김치 등 다양한 반찬을 기부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정희 회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라는 인사와 함께 "특히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박상길 면장은 "해마다 다양한 반찬 기부활동을 통해 이웃 간의 따뜻함을 전파하시는 생활개선회 회원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혹서기 소외계층이 외면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병열 기자atmng0@naver.com

역사·문화·풍경 속을 걷는 문경 여행의 꽃
문경새재도립공원

백두대간의 절경을 한눈에 즐기는 짜릿함
단산관광모노레일

국내 최초 문화 생태 영상 복합 테마파크
문경에코월드

문경 모든 여행을 담다

전통과 현대, 자연과 문명이 공존하는 생생한 역사와 문화의 보고, 문경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가 가득하고 1년 내내 색다른 재미를 더하는 축제까지! 문경에 머무는 모든 순간이 추억이 됩니다.

공정의 힘
Yes 문경

안동의 밤 달구는 풍류향연 '하회선유줄불놀이' 대인기

이달 시연 6400여명 관람 성료
11월까지 월 1회 공연 운영 '기대' 공공안전 인력 200명 투입 집중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하나로 안동시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한국정신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4 하회선유줄불놀이: 하회야연(河回夜宴)' 두 번째 시연이 지난 1일 안동시 풍천면 하회마을 만송정 숲과 일대 강변에서 성공리에 이뤄졌다.

올해 시연 주제는 하회야연(河回夜宴)이다. 중국 당(唐)의 시인 이백(李

白)이 지은 명문장인 '춘야연도리원서(春夜宴桃李園序)'에 착안해 근심걱정을 잠시 잊고 지금 이 순간의 자연과 풍류를 함께 즐기자는 의미를 담았다.

지난달 5일 첫 시연과 달리 이번 시연은 날이 맑고 선선해 쾌적한 관람이 가능했다. 이날 선유줄불놀이 시연에 앞서 진행된 부대행사에서는 통기타 가수 양준모, 해금 연주자 남영주, 소리꾼 정해운, 가수 정재욱의 음악 공연이 연이어 진행되며 선유줄불놀이를 기다리는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이달 1일 시연을 관람한 시민과 관

객은 약 6400명이었고 행사추진을 위해 공공안전, 교통 관리, 행정, 행사 운영 각 분야에 투입·종사한 인력은 대회 200여명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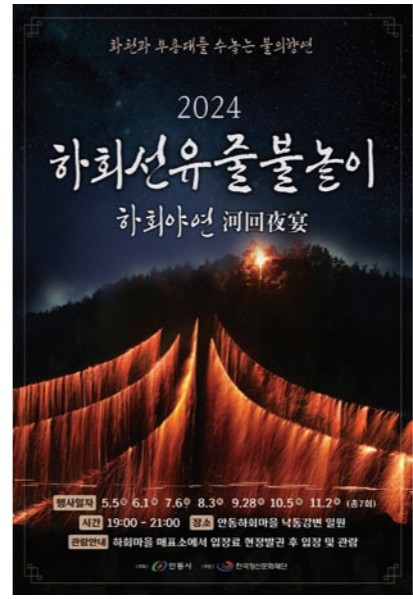
하회선유줄불놀이 관람을 위해 행사 장소에 입장하려면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구매해야 하며 인파 밀집 및 교통량 급증 시에는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통행이 제한될 수 있다. 행사 당일에는 경북도청과 하회마을을 연결하는 임시 순환버스를 운영한다.

앞으로 하회선유줄불놀이 시연 일정은 △7월 6일 △8월 3일 △9월 28일 △10월 5일 △11월 2일까지 5회가 남

아 있다. 야외에서 불을 사용해야 하는 행사 성격상 외부 요인에 의해 행사 일정이 취소 또는 변동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누리집, 사회관계망(SNS), 행사장 내 방송, 하회마을 일원 게시물 부착 등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행사 주제처럼 고요한 속에서 지친 마음을 달래며 휴식을 즐기시고 부디 안동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 시는 관계 기관·단체와 함께 행사 운영에 최선을 다해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기울이겠다. 오는 7월에도 더욱 편안하고 알찬 행사로 찾아뵙겠다"라고 전했다.

오명수 기자oms727@nate.com



경산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13일 저녁 7시 30분 영남대
푸치니 최대 걸작들 선보여

경산시립합창단은 13일 저녁 7시 30분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그랜드홀에서 제30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지난 2007년 창단한 경산시립합창단은 지금까지 29회 정기연주회와 해마다 30회 이상의 찾아가는 연주회를 선보이며 경산 시민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특히 이번 연주회는 푸치니 서거 100주년을 기념해 푸치니의 청년 시절 최대 걸작 중 하나인 '대영광송'과 그의 수많은 오페라 중 '라보엠', '토스카', '나비부인', '투란도트', '에드가'의 아리아를 소프라노 이윤경, 테너 김효종, 바리톤 제상철이 협연한다. 또한 경북도립교향악단과 구미시립합창단이 함께 출연해 연주회를 더욱 풍성하게 채워갈 예정이다.

공연은 무료 공연으로 티켓링크에서 공연 전날인 12일 낮 12시까지 예매할 수 있다. 또한 잔여석에 대해 공연 당일 천마아트센터 그랜드홀에서 공연 시작 60분 전부터 좌석 티켓을 선착순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립합창단(053-810-6537, 6688)로 문의하면 된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서예협회 성주지부 회원들
전국·도대회서 賞 咲쓸이
지역 문화예술 위상 드높여

(사)한국서예협회 성주지부는 대한민국 서예대전과 경북도서에대전에서 많은 입상자를 배출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서예대전' 한글부문에 동천 배미정씨가 입선을, '경북도서에대전' 한문부문에 시한 김시성씨가 특선과 입선을, 한문부문에 도국 김찬정씨, 아산 문호식씨, 인계 이해경씨, 옥당 이형근씨, 일주 한상석씨, 학선 한상희씨 그리고 한글부문을 이순기씨, 미당 정영숙씨가 입선을 수상했다. 입상자들은 성주문화원 서예교실에서 한문은 경당 박기열 선생, 한글은 소은 김영희 선생에게 지도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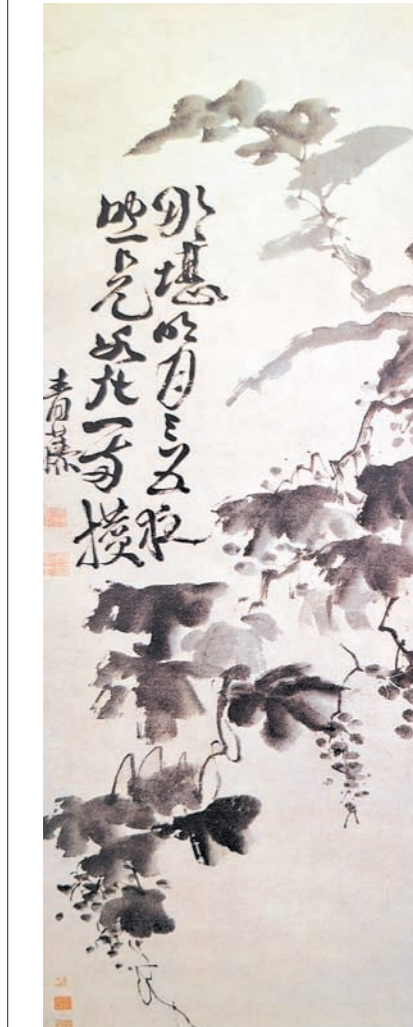
국전에 입상한 모든 작품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오는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며 도전 입상작은 도청 동라관에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김영희 지부장은 "회원들이 국전과 도전에서 소중한 결실들을 맺어 지부장으로서 가슴 뿌듯함을 감출 수가 없다"라며 그간 회원들의 노력을 격려했다.

이병환 군수는 "서예로서 전국에 우리 성주를 알리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앞으로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데 더욱 힘써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일희 기자hoyai1515@daum.net

윤호세기연구소 유정 정운숙의 수묘문화칼럼 - 풍류의 정신 사군자



서위, 포도도.



서위, 잡화도부분.

명(明) 새물결 광달자방의 사군자(32)

(狂達自放)

고대로부터 동양문화권에서는 자연을 벗삼아 인생관을 논하고 세상의 이치를 살폈다.

"학문(學文)이 깊으면 세상을 통(通)하고 우주 만상을 살핀다"는 학설은 성현들의 일도(一道)이다.

송대 번창했던 문인화 시대를 거쳐 사유의 작품 경향들은 폭 넓은 출판물을 바탕으로 학습됐다.

심주와 진순의 개성적인 화취화가 서위(1521-1593년)에 의해서 진일보한 수묵사의법(水墨寫意法)을 창출

했다.

서위는 매화를 사랑해 거처하는 곳을 매화관이라 칭했으며 문인들의 격조 있는 삶을 추구하는 서정성 등을 엿볼 수 있다. 파격적 필묵과 꽃을 사랑해 계절마다 화회의 자연관을 화폭에 담았다. 불우한 환경과 폭 넓은 학문은 세상의 관조로 명대 이전에 사군자의 기법과는 다른 독자적 화풍을 엿볼 수 있다.

중국을 대표하는 화가 제백석의 "서위와 요창석을 존경한다"라는 말



서위, 묵난도.



진순, 화취도.

은 중국 서화가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서위의 생(生), 화(畫)를 느껴보자.

달성문화재단, 13~19일 전시지원사업 참여 예술인 모집

무료 대관 등 다방면으로 지원

달성문화재단에서는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2024년 하반기 참꽃갤러리 전시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 예술인을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달성군과의 위수탁 협약을 통해 참꽃갤러리의 운영과 관리 권한을 갖게 된 달성문화재단

이 지역민들의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지역 예술인들의 발전 및 상생을 도모하고자 반기별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다.

하반기 전시지원사업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개인전을 2회 이상 개최한 경력이 있고 미술대학 및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이에 준하는 예술 활동 증거가 가능한 개인 및 단

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행사성, 종교성, 정치성 및 단순 친목 도모를 위한 전시와 비전문성 작품, 아마추어 참여 대상 전시 등 전시의 성격이나 수준이 참꽃갤러리가 지향하는 바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난해 또는 올해 상반기 참꽃갤러리 전시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또는 단체 △2024년도 하반기 기준 국·공립

단체나 상업인 기관 등에서 참꽃갤러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은 예정인 예술인 또는 단체의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 예술인에게는 △참꽃갤러리 전시 공간(약 55평 규모, 수장고 이용 가능) 무료 대관 △재단 SNS 채널을 통한 온라인 홍보 및 전시 홍보물 제작 △전문 테크니션을 통한 작품 운송 및 설치를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예술인은 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서

류를 내려받아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이메일(dydyk@dsart.or.kr)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병구 대표이사는 "달성문화재단은 참꽃갤러리 전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지역의 문화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달성문화재단과 함께 지역의 문화 예술을 선도해 나갈 역량 있는 예술인 및 단체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장충찬 기자jongchan2114@naver.com

나의 마음에 휴식을 주는 여행 ♥ 김천

Happy 김천 together 김천

편리한 김천관광을 위한 모바일 앱 -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김천관광+" 앱 다운

김천시

■ 의 학 칼 럼

유전 요인과 관련 있는 대장암(下)

이지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2514호에 이어= ■ 유전 요인과 관련 있는 대장암 대장암의 5%는 명확히 유전에 의해 발생한다고 밝혀졌으며 이의 5-15%는 유전적 소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전적 요인에 의한 대장암은 원인이 명확한 경우가 많고 결함이 있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므로 비교적 어린 시기에 대장암이 발생하며 다른 장기도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유전 성향이 있는 질환 가운데 대장암과 관련된 대표적인 것이 유전성 대장암중 증후군으로 대장에서 다발성으로 용종이 생기는 질환을 총칭한다.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을 비롯해 연소기 용종증, 포이츠-예거스 증후군, 카우덴 증후군, MUTYH 연관 용종증, 뮌어-토레 증후군, 터컷 증후군 등이 여기에 속한다.

선종성 용종이 다발적으로 생긴다고 모든 용종이 대장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특별히 높은 것은 아니지만 선종이 수백·수천 개나 생겨나는 만큼 전체적으로 대장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커진다.

실제로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의 경우 치료하

지 않으면 100%가 대장암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유전성 대장암의 대표 질환 중 하나인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은 비교적 이른 나이에 발생하고 유전성 종양 중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아서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 종양의 위치에 따른 수술 치료 방법

대장암 수술 시 종양의 위치에 따라 절제하는 범위가 달라진다. 기본 원칙은 종양과 충분히 떨어진 곳까지 대장을 절제하고 림프절도 광범위하게 절제하는 것이다. 특히 직장암의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는 종양의 조직 침투 정도, 항문 괄약근 침범 정도, 항문과의 거리 등이 중요한 요소다.

조기 직장암 중 종양이 항문면으로부터 8cm 이내에 있고 근육층 침범과 림프절 전이가 없으며 종양의 크기가 4cm이하일 때는 국소 절제도 시도해볼 수 있다. 수술 방법도 개복, 복강경, 로봇수술 등으로 다양하다.

항문으로부터 12cm 이상 위쪽에 발생한 암은 전방절제술이나 저위전방절제술을 시행한다. 항문으로부터 6-12cm 위치에 발생한 직장암은 가급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항문을 보존하는 괄약근보존술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로 저위전방절제술이나 초저위전방절제술을 시행한다.

초저위전방절제술은 직장의 대부분을 절제하고 항문거근 높이에 맞춰 절제하는 방법으로 자동단단문합기 또는 손을 이용해 절장과 남아 있는 직장을 이어준다.

종양이 항문으로부터 3-5cm에 위치하는 일부 직장암의 경우 암이 항문 괄약근을 침윤하지 않았고 항문 기능을 보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수술 전 방사선치료와 항암화학치료를 통해 괄약근보존술을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암이 항문 괄약근을 침윤했거나 항문 기능 보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복부와 회음부를 통해 암이 있는 부위의 직장과 결장의 일부를 절제하고 남아 있는 결장의 끝을 대변의 배출 통로인 인공 항문(장루)으로 만드는 수술인 복회음절제술을 시행한다.

수술 후에는 재발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보조적 치료법으로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는데 2-3기 직장암에서는 수술 전 또는 수술 후 방사선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전이암의 경우 간 또는 폐에 국한된 전이암에서 수술이 가능하도록 종양의 크기를 줄이기 위한 선행화학요법을 시행하거나 전이나 재발이 됐을 때 완치가 목적이 아닌 생명 연장 및 증상 조절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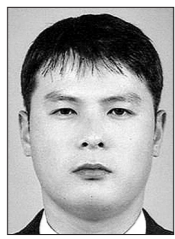
대장암은 초기 단계에서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매우 중요하다. 대장내시경을 통한 조기 발견과 치료는 대장암으로 인한 합병증과 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불규칙한 식습관, 만성적인 소화기 문제가 있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 조기에 발견하면 대장암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므로 건강을 위해 정기적인 대장암 검진을 권장한다.

■ 독 자 기 고

현충일, 낙동강 방어 전선 그리고 호국 경찰

박근주
대구광역시경찰서 경무과 경위



현충일이 속한 6월은 지난 1985년부터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호국보훈이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뜻의 '호국'과 '공훈에 보답한다'는 뜻의 '보훈'이 합쳐진 말로 6월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위훈을 기리는 의미 있는 달이다.

올해는 경북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된 후 처음 맞는 호국보훈의 달로 낙동강 방어 전투를 승리로 이끈 대구·경북에 더욱 의미가 크다. 제69주년 현충일을 맞아 6·25전쟁 속 낙동강 방어 전투와 대한민국을 수호한 호국경찰을 소개하려 한다.

지난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40여일 만에 경상도와 일부 지역을 제외한 우리 국토의 90%가 점령당해 대구·부산을 거점으로 낙동강 방어전선이 구축됐다.

최후의 방어선인 낙동강 전선에서 경찰관 6800여명이 북한군 4개 사단과 격돌해 합안지구를 지켜냈고 칠곡 다부동 전투를 비롯한 군위군에서는 매봉산 전투, 화산 전투 등에서 낙동강 전선을 사수해내며 반격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인 현장에는 호국경찰 영웅이 있었다. 6·25전쟁 최초 전사자로 기록된 전대목 경사를 비롯해 춘천 내평지서 노종해 경감은 불과 10여명의 인원으로 3000명의 북한군에 맞서 진격을 한 시간 이상 저지해 국군의 방어선 구축에 큰 역할을 했다. 경남 산청에선 감삼수 경위가 유격대 10여명으로 북한군 322명을 물리치는 등 총 62회 전투에서 놀라운 전공을 세웠다.

물론 이름 모를 호국경찰 영웅 또한 많다. 개전 초기 변변한 무기도 없이 싸워야 했던 1만

5000명의 경찰관은 유엔군에 배속돼 함께 전쟁을 치렀고 일부 경찰관들은 특별훈련을 받은 뒤 '화랑부대'라는 이름으로 재편돼 '인천상륙작전', '서울탈환작전' 등에 참전해 압록강까지 진출했으며 미 해병과 함께 영하 40도의 극한의 추위 속에서 '장진호 전투'에 참가해 호국정신을 발휘했다. 전쟁 기간동안 전사·실종·부상 경찰관은 당시 전체 경찰의 1/3에 해당하는 1만 7000여명으로 수많은 경찰관이 전장에서 장렬히 산화했다. 이처럼 국토방위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웅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다.

최근 북한은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행위 등의 비이성적인 도발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애국심을 기반으로 한 국민적 단합이 더욱 절실하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해 낙동강 전선에 배수진을 치고 목숨을 바친 수많은 호국 영웅들의 마음을 되새기고 그 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숭고한 경찰 정신으로 본받아야 할 것이다.

■ 사 설

휴진·행정처분 강대강 어디까지 가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을 예고한 오는 18일에 개원의들의 휴진이 30%를 넘어설 경우 정부가 의료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명령 불이행을 확인한 뒤 곧바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 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서울대 의대와 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데 이어 어제는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 진료거부와 총 쫓기대회를 예고했다"며 "정부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병왕 복지부 보건 의료정책실장은 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통해 "각 시·도는 의료법 제50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오는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그럼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 실장에 따르면 휴진을 계획한 의사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정부는 휴진이 얼마나 될지 미리 파악을 하게 된다. 이때 휴진이 30%가 넘는다면 오는 18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

전 실장은 "휴진일 아침 실제로 진료를 하는지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유선 확인을 하고 실제 참여율이 30% 이하이면 현장까지 가서 체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30%가 넘게 될 경우 현장에 가서 진료명령 및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을 확인해 행정처분하고 벌칙 조항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 실장은 "집단행동으로 인한 불법 휴진인지 개인 사정에 의한 것인지는 처분 과정에서 구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 실장은 "업무개시명령에 불이행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을 받을 수 있고 1년 이하의 의사면허 자격정지가 가능하다"며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정부는 오는 17일에 집단 휴진을 예고한 서울대병원에는 별도로 진료명령 등을 내리지 않을 계획이다.

전 실장은 "기준에 의료계에서 집단휴진 결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참여는 아주 미미했기 때문에 현재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와는 지금 소통을 하고 있고 조만간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법적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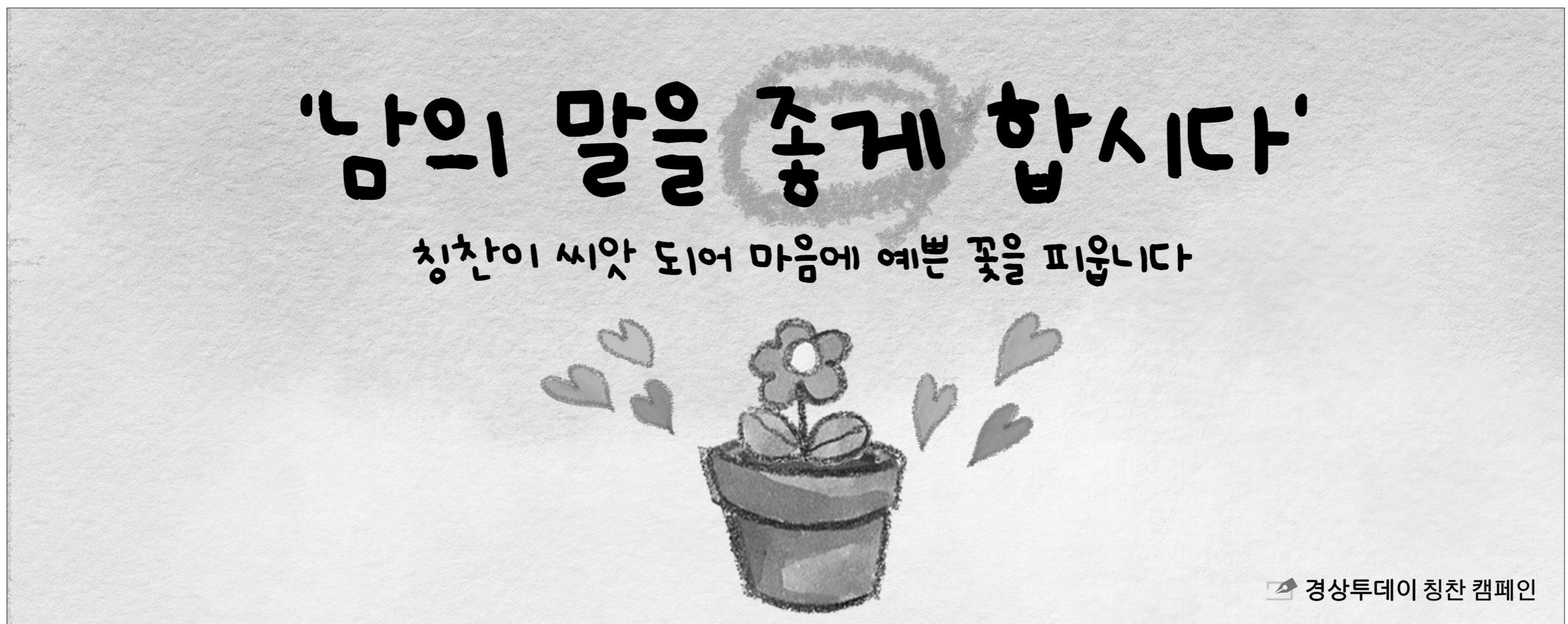
조 장관은 앞선 회의에서 "서울대에 이은 의협의 불법 집단 진료 거부와 총 쫓기대회 예고에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환자단체, 노동계, 교사회, 시민단체 등 모든 사회 각계에서도 우려하고 있다.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의 공익적 가치와 오랜 기간 쌓아온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국민들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의협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우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행정형벌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외부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상투데이		창간 2014년 3월 31일 등록번호 경북.가100032 http://www.gyeongstoday.com	
발행·편집인 이승협		편집국장 박성택	
본사 대표전화 (054)748-0070	사회 2부 <구내>1005	판매·광고 (054)748-0070	
편집부 <구내>1004	문체부 <구내>1007	경영·관리국 <구내>1006	
사회부 <구내>1006	정경부 <구내>1008	F A X (054)748-3333	
구독·광고·계보 ☎054-748-0070		E-mail : gst3000@naver.com	
·경주시양정로 255(동천동) 덕양빌딩 8층 구독료 월정 10000원 / 부당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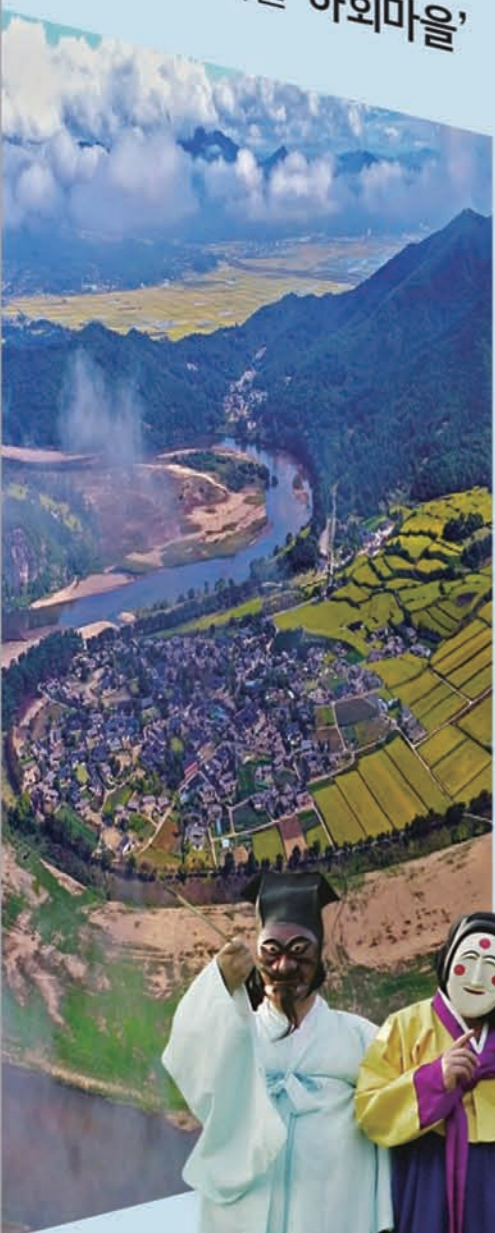


한국의 미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안동



**안동! 유네스코 세계유산
3대 카테고리 보유 최초 도시**

2010년 7월 세계유산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마을'



2022년 11월 인류무형문화유산
한국의 탈춤 '하회별신굿탈놀이'

2015년 10월 세계기록유산
한국의 '유교책판'



2018년 7월 세계유산
한국의 산지승원 '봉정사'



2019년 7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도산서원'



2019년 7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병산서원'

